손.발.어깨.무릎.목.허리
MS재건병원
동인네거리 053.653.0119 지하철1호선 칠성시장역

每日新聞

새동산병원
인공관절·뇌질환·혈액투석·24시쇄석
053)720-0365 ▶비산네거리 제일고등학교 건너편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음력 6月 3日 乙卯) 대표전화 053)255-5001 imaeil.com
대구 25~35℃ 구미 24~34℃ 안동 23~34℃ 포항 25~34℃ 제23962호

경제·안보 다 잡은 尹대통령 '나토 세일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방 주요 국가와 어깨 나란히…정상외교 데뷔 무대 성공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다. 4면

윤 대통령은 해외 첫 순방이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10대 무역국가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G7과 서방 주요국가가 다 포함돼 있는 나토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역사적인 정상외교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양자회담 10건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한미일 및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 회동 등 소다자 회의 2건, 스페인 국왕 및 나토 사무총장 등 면담 2건, 스페인 기업인 오찬 간담회 등 모두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날인 30일엔 체코 및 캐나다 정상회담과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표 기업인 오찬 간담회, 영국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모두 끝냈다.

첨단·미래 산업 공급망 강화
원전·방산 분야도 외교 성과
그린수소·북핵 맞춤형 논의
16건 일정 마무리 오늘 귀국

윤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은 나토 정상회의 참가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가치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등 큰 세 가지 목표를 잡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대표단의 평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다.

특히 탈원전 선언으로 도약이 기대되는 원전 산업과 국제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는 방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국 방문 요청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상대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자고 약속했다"며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반도체 공급망,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 산업, 기후변화 등 각국 맞춤형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의 모든 연설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와 규범,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국제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됐다"며 "반중(反中) 노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룰과 법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 관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수성구 뺀 대구 전역·경산시 조정지역 풀렸다

국토부 심의·의결 5일부터 효력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성구
조정지역 적용 '규제 유지'

앓던 이가 드디어 빠졌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시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3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주택 시장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고사 직전에 처한 지역 주택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관련 조치가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권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대구 수성구 외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갖가지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등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데,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강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역에서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왔던 부분. 대구 7개 시·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주택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도 꾸준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미분양 물량을 점차 해소하고 주택 거래량도 다소 늘 것으로 보여 주택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TK 민선 8기 출범

대구경북 민선 8기가 1일 출범했다. 지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4년간 대구경북 발전 방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화합의 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과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홍 시장은 대구시정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담아 이곳에서 취임식을 연다.

재선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도지사는 "민선 8기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지방시대'를 경북이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아이와 교실 중심의 대구교육'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제11대 교육감 임기의 새 출발을 알린다. 이날 오후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취임식을 연다.

역시 재선에 성공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미래 교육 정책, 온전한 교육 회복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성현 기자 서광호 기자 박영채 기자

TK 새 단체장들 포부 ▶8면



심의필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쾌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내년 최저임금 9,620원…5%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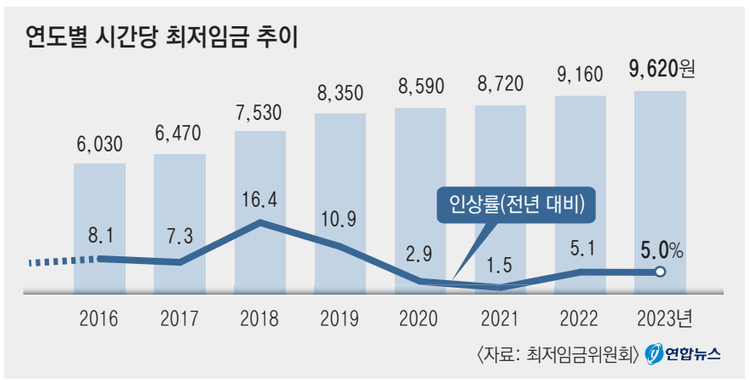
〈460원〉

월 209시간 기준 201만원 확정 발표에 노사 모두 반발 "실질 삭감" "소상공인 외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정해졌다. 노사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노사는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인상률 5%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30일 대구시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2년 대구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목공예 직종에 참가한 선수가 기량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시지부가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29개 직종에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낙동강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예타 통과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핵심 사업 2028년 준공 목표, 하반기 용역

대구시와 구미시의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5~6월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원, 청도 운문댐)와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조4천95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톤(t)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t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 건설이다.

정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30년간 지속됐던 낙동강 유역 약 700만 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에게 단수 없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300억원 → 500억원)으로 높이고, 신속 예타 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경북 심야약국 7곳 밤 10시~새벽 1시 시범 운영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 취약시간대인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주민이 의약품 구매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에게 복약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지만 이용 인원이 적고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간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올해 국비 지원으로 시범 운영(전국 62개소)하게 됐다.

도내에 모두 7곳 약국이 운영되는데,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의 도심형과 10만 명 미만의 비도심형으로 구분된다. 도심형 지역은 ▷포항 남구 서문제일약국 ▷포항 북구 두꺼비약국 ▷김천 드림약국 ▷경산 복광당약국 ▷칠곡 대구약국이다. 비도심형 지역은 ▷상주 수정온누리약국 ▷영천 예약국이다.

한편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 4개 시 지역에서 11개 약국이 야간운영을 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에는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5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 관련 설문을 한 결과 8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도민의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투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약국을 확대해 도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구급대원 출신 경북 최초 女 소방서장

김난희 예천소방서장 취임…전국 첫 여성 119구조대장 이력

경상북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1일 자로 김난희(54) 119특수구조단장이 예천소방서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난희 신임 서장은 1994년 1기 전국 전문자격 구급대원으로 경북도에 최초로 특별 채용됐고, 안동소방서에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06년 영천소방서에서 전국 최초 여성 119구조대장으로 임명됐고, 2016년 도내에서 첫 여성 소방령(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2021년 소방정으로(4급 서기관) 승진해 역시 전국 최초 여성 119특수구조단장을 지냈으며, 이번 취임으로 전국 구급대원(1만3천여 명) 출신 중 최초로 소방서장에 임명됐다.

그간 경북소방본부 초대 구급상황관리센터장, 국민안전처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TF팀장, 소방청 119구급계장, 경북소방본부 구조기획팀장 등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해 민항기 추락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시 상황 업무를 총괄 관리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응, 119구급대를 총괄 지휘했다.

중앙과 지방에서 현장과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관리자로, 상황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난희 신임 예천소방서장은 2002년 국무총리상(모범공무원) 및 202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소방서장은 "경북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역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2022년 7월 1일 금요일 每日新聞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 임상교수 역임
모발이식
닥터헤어Lee 의원
원장 이정호 2·28기념중앙공원 옆 053-422-5824

대출 규제·세제 완화…주택 매수 심리 살아날 듯

대구 주택 시장을 옥죄던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30일 열린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일부에서 자칫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구 주택 시장 상황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지 않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조치다.

지역에선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었고,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구 주택 시장도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날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침체 가속화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는 이미 한여름이지만 주택 시장 분위기는 한겨울이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춥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시장이 상황이 악화됐다는 시각이 많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2020년 12월 18일.

지정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률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 외곽지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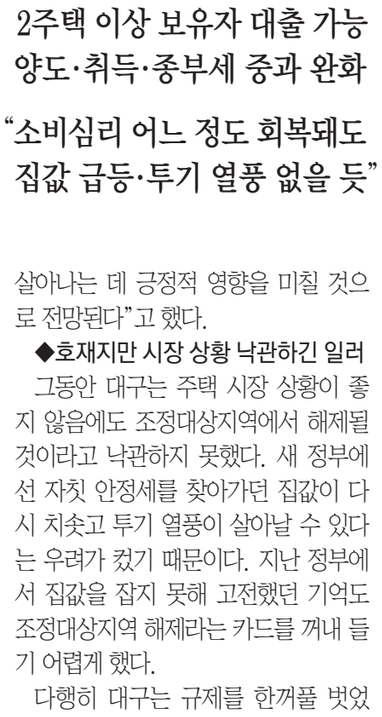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6천816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2만7천375가구) 중 약 24.9%에 이른다. 국내 미분양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대구에 있는 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미분양 물량이 280가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4배 이상 늘었다.

4월(6천827가구)에 비하면 미분양 물량이 조금 줄기는 했다. 하지만 11가구 감소한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 특히 달서구(2천360가구), 동구(1천430가구), 중구(1천48가구)에 미분양 물량이 많다. 달서구는 지난 3월 이후 미분양 물량이 매월 2천 가구를 넘고 있다.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났다. 2017년 108대 1이었던 아파트 청약률이 점점 떨어지더니 지난해 3대 1까지 감소했다. 올해 1~4월 평균 청약률은 0.6대 1까지 하락했다. 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1천457건으로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주택 거래량(8천4건)에 비해 82%나 감소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구 주택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약보합세로 안정된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금리가 오르고 있어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세제가 완화돼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 시장이 살아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주담대 한도 50%→70%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가능
양도·취득·종부세 중과 완화

"소비심리 어느 정도 회복돼도 집값 급등·투기 열풍 없을 듯"

◆호재지만 시장 상황 낙관하긴 일러

그동안 대구는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낙관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선 자칫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다시 치솟고 투기 열풍이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해 고전했던 기억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렵게 했다.

다행히 대구는 규제를 한꺼풀 벗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던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이 됐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의 말대로 이번 조치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덕분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

지역에선 대체로 이번 조치를 반긴다. 다만 이로 인해 시장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남아 있어서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구 주택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던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진우 자산관리연구소장은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지만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급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석진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대구는 현재 공급 물량이 과도한 상태다. 지금보다 거래량은 늘겠지만 집값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 탓에 당장 부동산 경기가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시행, 건설, 분양업계 반응도 비슷하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체가 장기화, 가속화되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숨을 고르면서 다시 시장을 활성화할 기회가 생겼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옳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대구 미분양 6816가구 '1위'…경북 5369가구 '2위'

수도권 포함 시켜도 전국 최다
4, 5월 연속 '미분양 천국' 오명

대구경북의 최근 주택 미분양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올해 5월 미분양 집계에 따르면 대구는 6천816가구가 미분양돼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다. 경북도 5천369가구가 미분양으로, 대구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이 인구와 주택이 훨씬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시켜도 전국 미분양 1~2위 차지한 점은 그만큼 지역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직전 달인 4월에도 6천827가구가 미분양돼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 미분양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4월 한달 5천938가구가 미분양돼 대구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국 상황은 지역과 달랐다.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천375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3천563가구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고, 지방은 2만3천812가구로 1.6% 줄었다. 서울이 688가구로 전월(360가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으나 경기는 2천449가구로 14.1% 증가했고, 인천은 426가구로 전월 대비 8.2% 오히려 줄었다.

5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6만3천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자재비 가산제도 신설

HUG, 오늘부터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개편되면서 규제지역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바꾼다.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값싼 노후 아파트가 비교 대상에 포함돼 분양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주택 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비사업 보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등 총 2회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했다.

2016년에 도입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관리한다. 연합뉴스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대의·실리 모두 챙겼다"

"목표 기대 이상 달성" 자평

양자 정상회담 10건 성사
신흥 안보 韓 기술에 관심

폴란드와 방산 협력 구체화
네덜란드 원전 수주 긍정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몸을 실었다. 첫 해외 순방이었던 이번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 다자회담, 면담 등 모두 16건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주목적이었던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 회동이 진행됐다. 양자 정상회담은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EU, 튀르키예,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등 총 10건이 성사됐다. 스페인 국왕,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이뤄졌다.

◆나토 참가 목표 "기대 이상 달성"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은 세계 외교무대 데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대의와 양자회담을 통한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게 한국 대표단의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과 대표단이 잡았던 3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대표단이 목표로 했던 콘셉트는 ▷가치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등 크게 3가지다. 가치규범의 연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대륙이 서로 크로스하는 연대와 협력의 연결고리가 규범과 가치를 매개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흥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매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흥 안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이 앞으로 계속 나토, EU 회원국들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신흥 안보협력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여러 나라 정상들과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환영 갈라 만찬에서 20여 개 나라 정상과 인사를 나눴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시작 전에도 15개국 정상과 만찬 때 만나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등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큰 주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성과

윤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은 이번 순방의 의의를 경제적 성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3가지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 부문에서 첫 경제외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에는 방위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외교에 중점을 뒀다"며 "세계 3~4위권 방산 대국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실사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 원전을 홍보하는 책자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적극 제안했다"며 "특히 네덜란드와 정상회담에선 네덜란드 정상이 '한국 원전이 선두적인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 원전도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오른쪽)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인도·태평양 연대" 尹 가치외교

안보질서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나토 전략개념서 중국 비판 명시
서방 중심 反中 노선 동참 모양새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기점으로 '가치외교'를 본격화한 모양새다. 한국과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나토가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실 서방의 반중(反中) 노선 동참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서 나토와 인도·태평양지역간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나토와 인태간 협력관계가 보편적 가치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한국을 지탱하는 가치를 고리로 나토와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가치외교'에 있어 지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각국과의 릴레이 양자회담에서 '가치 연대'를 먼저 앞세웠다. "지금의 글로벌 안보질서에서 한 지역 문제가 그 지역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가치에 기반한 국가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의 초청에 응한 데도 이러한 '가치외교 강화'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 초청을 받은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나토는 이날 공개한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중국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하는" 국가로 기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한 러시아 못지않게 중국을 위협적 존재로 묘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나토 회의) 참석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책임,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이상으로 모든 나라가 매우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초청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은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중국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섞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부터 일정에 이르기까지 행보 전반이 '반중' 노선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군사동맹을 빙자해 '아태판 나토'를 만드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대(對)중국·러시아 관계와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과제로 남은 셈이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 5차례 대면…관계 개선 기대감

양국 정상 서로 긍정적 인식
참모·각 부처 대화 발전 과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이틀 동안 5차례나 대면하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스페인 국왕 부부 주최 갈라 만찬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동 등 이틀 동안 5차례나 대면했다. 아쉽게도 공식 양자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앞으로 양국 관계의 해빙 기대감을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하향식) 분위기다.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며 "남겨진 과제는 참모와 각 부처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윤 대통령과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가 된 기시다 총리가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현장에서) 보니 (마인드가) 열려 있고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얼마든지 만나 실무협의를 풀어나갈 자세가 돼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우리도 일본 총리를 보니 개방적이면서 한국에 대해 기대도 크고 잘 해보려고 하는 열의를 느꼈다"고 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호준 기자



민주당 '의장단 선출' 본회의 4일로 연기

국힘 원내지도부 부재 중에 단독 선출하다간 역풍 우려
"주말 협상까지 결렬 땐 강행"
국힘 "합의 안된 4일도 불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오는 4일 개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일에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부재중인 가운데 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보다 거셀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에는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과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파행한다면 월요일(4일) 오후에는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말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일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충분히 국민의힘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소 취하를 압박했다.

국회 비상대기령까지 내렸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 연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민주당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총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행 중 다행"이라며 "국민의힘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 구성 추가협상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 부대표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개특위 구성 등 민주당의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수의 힘만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송 부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협상 상황을 공유했는지에 대해선 "취임식장 안에는 통화가 되지 않아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같이 동행한 원내대변인에게 상황을 공유했다"며 "(동행자들이) 원내대표께 보고했고,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아직 없으셨다"고 전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윤핵관, 이준석 손절?

친윤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 사임
윤리위 심사 앞두고 '선 긋기' 관측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대표 비서실장을 전격 사임했다. 정치권에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선 긋기란 해석과 함께 이 대표의 정치역정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은 박 의원은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가 대선 승리 이후 당 대표실로 가자 정가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의 비서실장 사퇴를 두고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거나 이 대표에 대한 윤핵관의 '손절'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 사퇴 시점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중을 당과 윤리위에 에둘러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는 박 의원의 당직 사퇴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실장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들었고, 제가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사퇴가 윤심(尹心)이 떠난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지 질문엔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 의원과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포항에 이어 이날 경주에서 행보가 원전 활성화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이랑 전혀 상관없고, 원래 예정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퇴 가능성도 일축하며 당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당이나 정부의 지지율 추세가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걸 돌파하려면 작년 이맘 때처럼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文정부 공공기관장 물러나라" 송언석 수석부대표도 나섰다

홍장표 KDI 원장 콕 집어서 겨냥
국정철학 다른 인사들 '용퇴' 압박

여권이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용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내치는 과정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어 자진 사퇴 주문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이분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현 정부와) 경제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도 지난달 29일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서도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의장인데,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며 "이런 분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향해서도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김종인 "尹정부 부정평가 역전, 굉장히 심각"

출범 두 달도 안돼 데드 크로스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출범한 지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연 이 사람들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없고,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것,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앞세운다는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로서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간 주도 경제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목적으로 방위산업·원자력발전 수출 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참가국의)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쉽게 우리가 그냥 앞서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상가

수성APT정문상가 2층상가 대88㎡ 도15m접 역세권 상권好
月190 매매가 8억5천만 421-1405
No. 가-15-673 북구 대일공인 이봉현

경대 북문 코너 1,2층 상가 임대 통 임대 (각각 89㎡ (27)) 보증금 3억 / 月700만원
담당 강문선 010-4005-5640
No. 가-16-4676 수성구 신한국부동산(주) 박성호

유통 단지 상가 급매
엑스코 앞 상가 건181㎡ 융3억5천 보5천/月250 가능 인수가 3억4천
부동산환영 010-7190-2356

통상가 북구 연경동 교회, 회사 사옥 최적지 대198 건302 매37억
주인직영 010-6727-3330

5층 통상가 대로변 본동 요양병원, 교회, 사옥 등 주차 확실, E/V有
대1494 당2천만 010-5341-0049
No. 27170-2020-00017 서구 대진부동산 이승열

임대·앞산호텔 옆
1층247㎡(75) 4층 231㎡(70)
대명동 · E/V有 · 가격절충
주인직접 010-3503-1565

※역세권 月2천 35m코너 횡단보도접 만出 대1517㎡(450), 건3153㎡(955) 당1650만 남산자이맞은편 58억 010-4278-9600

유흥주점 매매 수성구 두산동
룸12+6개 주차완비 약660㎡(200)
보5천 월250만/ 중과 없음/ 권·시설
상담후 결정 010-3200-3069

◀카페 인수 하실분▶
만촌동 대단지아파트 배후지역
보5천/월230, 권 협의, 월수익 보장
범어1부동산 27260-2020-00125 010-3510-9806

주택

급매 주택 불로동 (반 스라브, 기와) 대184㎡ 시장인접 방3, 거실, 남향, 매2억 조정可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상가주택 월200만出 대183 건330 3억인수 재개발 정문앞
2호선 역세권 010-4278-9600

상가주택

역세권 상가주택
수성구 신축400出 대221㎡ 엘베有
주인 주택사용하고 10억인수
053) 741-8556
No. 27260-2022-00019 수성구 365부동산 김진현

전원주택

산삼 약초농원
황토찜질방 지하수, 전기, 포장도로
57341㎡(17643) 산2만원
(기타임산물 2만원)010-5392-1545

성 주 가천 정자좋고 물좋은 전원주택 2009㎡ 황토벽돌집112㎡ 원두막, 태양광, 매6억5천/전원 텃밭 1404㎡ 계획관리 계곡물 콸콸, 생활 컨테이너有 당60만010-4513-3888
No. 27290-2019-00075 달서구 삼인부동산 김주호

모텔

초급매 대형모텔 룸58 유흥 밀집 감정가 이하 사정상 처분 건물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융안고 18억인수 010-8420-1755
No. 2770-2020-00012 서구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구미호텔 매매 룸42 대1074㎡ 건1877㎡
주차 45대 월매출1억, 월순수익 4천~4500 올리모델링 9억함 융48억
현금16억인수 100%만실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 강은경

모텔 임대 보4억 월1500 룸35 구미/
주인직 실매출4500/ 보5억 월1800 룸42 대구시내/주인직 월매출5500 꼭 하실분만 문의要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 강은경

카무인 호텔 매매 룸28 밀양시청접
월매출4500 대3,216㎡ 건2,488㎡ 월순수익 2천만이상 주거용 방2개 융28억 현금11억 인수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 강은경

대지/임야/공장

군위 청정지역 661㎡ 주방, 욕실, 난방, 상수도, 텃밭, 계곡 낀 멋진 별장, 잔디정원, 2차선 포장접
주인직 010-8811-1799

이현동 35m대도로 나대지매매다용도
대지 1000·2000·4000 581-6005
No. 가-7-3948 달서구 보문공인 김혜옥

청도군 매전면 임야
6600(21,818㎡) 전부 준보전산지
건축가능 1억8천
010-8383-3029

급매 달성군청 상업지역 나대지 도로 10m접
267㎡ 당425만 접근성好 635-5301
No. 27710-2017-00100 달성군 매일공인 손종배

성서공장 매매 구지 1881㎡ (570) 건430, 고10m, 크레인 5t, 공단 공장용지 9900㎡(3000) 매매 당120만 582-0089
No. 가-17-3784 달서구 부자공인 박운호

청도 이서면 학산리 대 도로접 카페, 전원주택 계획관리지역 4400㎡(1331)
매12억 (당90만) 053)768-4008
No. 27260-2021-00108 수성구 혜화부동산 채현수

다용도, 40m대로 30m대로 대9918㎡ 당2200만, 대7000㎡ 당1650만
010-3501-1477

안동산업단지 정문앞
계획관리 7272㎡(2200) 당135만
길 없는 땅 / 11,570㎡(3500) 당40만
매입 가능 010-4538-4590

급매 죽전네거리近
도50m 대400㎡ 당2300/서남시장주통로 대325㎡ 당1200/퀸스로드 주통로 대333㎡ 당1200 010-3578-5552
No. 27170-2021-00032 서구 비젼공인 신윤겸

봉무동 나대지 급매
이시아폴리스내 상업용지 694㎡(210)
엑스코선 확정 매24억 (인수가 7억)
053) 985-9300
No. 27140-2021-00132 동구 강산부동산 최국섭

칠곡 도계온천 인근 전원주택지 661㎡, 826㎡, 991㎡ 전망멋
짐 (계획관리) 개인 010-3508-1358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량 보유
010-8242-4406

그린벨트 해제 되면 대박!! 수성구 대로접 3000 당120만
사정상 초급매 010-7464-8984

청도 각북 탁트인 전망 대672㎡(203)+답737㎡(223) 조용한 청정지역
전원주택 등 매매6억 010-9536-8989
No. 27260-2021-00091 수성구 가득공인 박명순

성서공장 매매 500,1000,1500
/식품공장 대225 건120 582-0039
No. 가-17-3986 달서구 박씨공인 서보겸

대도로 상업지역 땅 3호선 역세권 대1662㎡
당 2000만 010-4000-1573
No. 11-2014-12 남구 천마부동산 조성진

경산(공장용지)
의송리 대3340㎡ 당210만원 도15m, 츄레라 출입가능 건폐율 70%, 용적율 300% 053) 793-4114
No. 가-16-3091 수성구 시지월드공인 박애경

땅 사실 분 팔공산 터널 지나서 5분 거리 전기 있음
1343㎡(407)당60만 053) 652-6050

대지 47㎡당 400만 (155㎡) 서대구 재개발지 땅 비산동
3.3㎡당 400만
집 지을 땅 급매 010-3499-8885

금호 오계리 공장부지 5058㎡ 건물973㎡
매매14억 010-8242-4406

의성 공항에서 8km 떨어진 밭 5305㎡(1605) 사과밭 반, 자두밭 반. (급매) 주인직 010-4512-4787

서대구 역사근 대지 급매 대1253㎡ 당900만
엠월드인근 15m접 010-3502-7932
No. 27290-2019-00205 달서구 유성부동산 김기원

자연녹지 현풍 구지 국가산단접 3868㎡ 당120만
010-8678-2269
No. 27290-2018-00072 달서구 이곡역부동산 설태우

공장 영천시 북안 창고 면적 6046㎡ 공장 3305㎡
IC 5분, 24억 010-3536-4535

기타부동산

편의점 인수하실 분 현 성업중 5년 만기종료 예정
010-5607-3091

성주 수륜 농막 2차선접 배산임수
텃밭, 전기, 수도, 펜스, 유실수, 관상수 주말농장, 하천 끼고 명당터569㎡(172)
1억1500 주인직 010-2749-6800

대구인근 9홀 골프장 개발사업
하실 분 약40만㎡ 010-3514-1000
No. 27290-2016-00175 달서구 청마부동산 우병훈

전원주택·미니골프장·대형 캠프촌 개발 용지
청도 약160,000㎡ 010-4918-4599
C.J부동산컨설팅

성공적 임기 첫 단추 '원 구성' 관심 집중

개원 준비 분주한 대구시·경북도의회

개원을 앞둔 대구경북(TK) 시·도의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4일 첫 임시회를 통해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들이 상대해야 할 집행부 수장이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정치 베테랑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이기 때문이다. 임기 첫날부터 진행될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제9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의원 명패를 점검하며 개원준비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 의회 원 구성 코앞… 분위기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회기 첫 날인 4일 전반기 의장 선출에 돌입한다. 전반기 의장 임기는 총선이 열릴 2024년까지인 만큼 이들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전은 3선의 이재화(서구2) 시의원과 재선 이만규(중구2)·김대현(서구1) 시의원의 3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특히 의장단 선출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장 선거에 대한 시의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애초 최다선인 이재화 시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으나 '징검다리 3선'의 4년 공백을 실감하며 좀처럼 지지세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이 재선 시의원 두 명이 양강을 구성하며 경합 중이다. 실제 투표에서도 두 사람의 지지세가 엇비슷하다면 이재화 시의원을 지지하는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시의원의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과반 득표자를 우선으로 의장을 뽑는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고, 다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역시 여러 변수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가운데 내부 경선 승자가 본 투표에서 당선이 유력하지만 내부 경선이 안개 속이다.

의장에는 5선의 박성만(영주) 도의원과 4선의 김희수(포항)·배한철(경산) 도의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의장 후보로는 3선 박영서(문경)·박용선(포항)·최병준(경주)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포항 출신 2명이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도전하면서 포항 도의원들의 표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의회는 암묵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선출하는 일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사실상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됐고, 각자 타 지역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투표함이 열릴 때까지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원들의 설명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상당수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이끌 수장 누가 될까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 3파전
이재화·이만규·김대현 경합
경북, 박성만·김희수·배한철

견제 기능 상실 커지는 우려
국힘 소속 일색인 시·도의회
한솥밥 단체장에 쓴소리할까
지역 정치권 "당리당략보다는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다해야"

국민의힘 소속 재선 도의원이 17명에 이르지만 상임위는 7개에 불과하다. 전·후반기 조율이 되지 않으면 추대가 아닌 선거로 결론을 내야 하는 분위기다.

◆ '빨강 일색' 견제 실종 우려도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일색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역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대구시와 경북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대구시의회는 32석 중 31석, 경북도의회는 61석 중 5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이는 직전 시·도의회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대구시의회에선 사상 최초로 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입성했고, 경북도의회에서도 민주당 출신 9명이 당선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당 정치의 격을 갖췄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정당 정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경북도의회에 각각 비례대표 1명과 2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경북도의회에는 무소속 도의원 3명이 있지만,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복당이 예상된다.

같은 당 소속인데다 압도적인 정치 경력을 자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이들이 보여줄 모습에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는 기존에 보여준 모습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홍 시장은 벌써부터 행정사무감사 정도를 제외하곤 시의회를 거의 찾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며 "시·도의원들은 당리당략보다는 지방의원의 책무를 되새겨야 하고,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훈 기자 apple@imaeil.com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민주 '97 그룹' 당권 도전 러시

〈90년대 학번·70년대생〉

친문·86 이재명 견제 위해 지원
'차차기 노린 체급 올리기' 분석도

더불어민주당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이 세대교체론의 기치를 내걸고 전당대회 출마를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30일 기준으로 당내 97 그룹 가운데 강병원·박용진·강훈식 의원 등 3명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박주민·전재수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찻잔 속 태풍이 되는 듯했던 97 그룹의 세대교체론이 다시 힘을 받는 배경에는 친문(친문재인)계의 2선 후퇴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물밑 지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이 전방위적 불출마 압박에도 당권 도전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친문계와 86 그룹이 97 그룹을 앞세워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친문계 유력 주자였던 전해철·홍영표 의원은 당 안팎의 '선거 패배 책임론'을 인정하며 출마를 포기했다. 또 86 그룹 대표 주자로 불리는 이인영 의원은 최근 97 그룹과 조찬 회동을 갖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 출마를 선언하는 게 당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97 그룹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과 맞대결로 '체급'을 올린 뒤 차차기 당권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거쳐 이 의원과 일대일 구도를 형성할 경우 이번 전대에선 어렵지만 차차기 전대에선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의원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친문계와 체급 향상을 노리는 97 그룹의 이익이 딱 맞아 떨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文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 법적 근거 없이 운영"

국회 입법조사처 문제점 지적
"혐오 조장·여론 왜곡 등 발생
'실명제 도입' 긍정 대답 75%"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30일 공개된 입법조사처의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 보고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청원,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 ▷일부 연예인을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이 오른 바 있다.

보고서는 또 국민청원 게시판의 부작용으로 "열성적인 집단이 청와대 청원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청원이 아니며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상 중인 대통령실 소통창구 실명제와 관련해 "한 조사에 따르면 '실명인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긍정 대답이 75.2%에 달했으며 '실명인증 절차가 도입된다면 국민청원 참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47.5%가 참여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의뢰한 결과물이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모 집

모 집 기 타

신입사원 모집 남·여 0명

재개발사무실 근무:주5일 9시~17:30
차량소지자 우대 010-7409-7995
애플토지개발㈜

귀농·귀촌단지조성 청도 군청 5분거리 귀농귀촌지원 사업 입주자100% 토지담보로 고이율 (협의) 010-5146-1900

배 달 직

배달원급구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유자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논공·옥포읍면소재지,남여노소 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4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지자可 서대명지국 010-3511-0195

학원정보 광고문의 : 251-1234

음치교정·노래개인지도 전문
노래개인지도의 신神! - 작사작곡가 권혁식
이선희, 박진석, 백다원, 남진, 양지은, 문희옥 걸스데이가 그의 작품을 불렀다.
권혁식 작곡실 (대구)010-3829-5995

매일안내 광고문의 053 251-1234 080-711-2001 每日新聞社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106101-중-124051호
※ 수술 후 빛번짐, 시야흐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노안백내장수술도!
이노안과의원
상인롯데백화점 뒷편 상인프라자 5층
T.632-6800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 6. 2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500원 주식 2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 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

주식회사 금영테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40길 44
공동대표이사 장 재 진 · 박 영 동

공 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40조 및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을 의결하는 경우 주주님들의 배당금을 주주님들의 구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주주제위께서는 당사 총무과(054-603-1240)로 배당금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법 제464조의2 및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로 귀속되오니 배당금 미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본 공고로써 최고합니다.

2022. 7. 1.

계림요업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68번지(공단동)
대표이사 유 상 정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0514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김병말(1963.3.5.생)
사 망 일 : 2022.3.19.
최후주소 :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41, 105동 1201호 (상인동, 월촌화성타운)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7. 1.

청 구 인 : 안상두, 김원규
주 소 : (안상두)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41, 105동 1201호 (상인동, 월촌화성타운)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등산복 작업복 골프웨어 | 남성복 여성복 상품 다양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국내 유명브랜드) (KY 어패럴 본사 1층 800평) (매주 수시 신상품)

- TV방영 프로그램 -

전품목 매장방문시 추가할인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봄맞이 초저가 창고 대 방출!)



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가격파괴 창고형 의류 판매장!)



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
(불황타파! 초저렴의류 할인매장)



2015년 7월 16일 MBN 「리얼다큐 숨」
(대한민국 최저가를 찾아라)



2015년 5월 6일 채널A 「관찰카메라24시」
(창고 대개방~! 쇼핑v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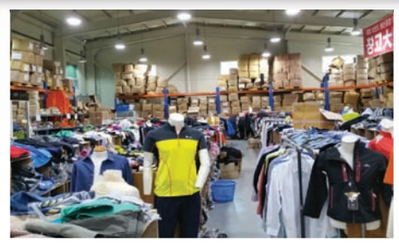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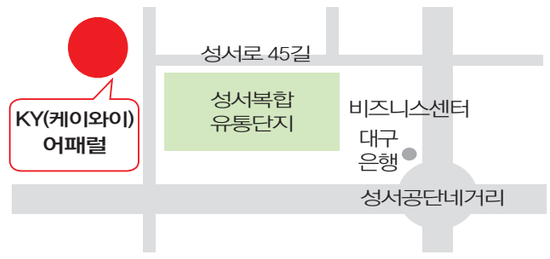


KY어패럴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문의전화 : 053-591-6328
· 주 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KY어패럴은 연중 무휴이며 설, 추석 당일 및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합니다.

성서공단네거리 대구 비즈니스센터 뒷편



긴급대처분

등산복 / 작업복 / 골프웨어 / 운동화



로베르토 베네지아 남성 5종 세트
29,000원



메긴나잇 페미닌 모달티 5종 티셔츠
25,000원



티셔츠
3,000원
(면티셔츠, 골프웨어, 작업복등)

2015년 5월 06일 채널A '초특가로 모십니다'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2015년 9월 01일 KBS2 '생생정보'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골프웨어 등산복 등 다양한 상품

2016년 6월 0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2021 카카오프렌즈 남녀공용 5종 티셔츠



사이즈 :
80~110

가격 : 5종세트
40,000원

색상 :
화이트 블랙, 민트, 카키, 베이지

소재 :
면 95%
폴리우레탄 5%

※카카오 티셔츠는 남녀공용이며 5종 세트 가격입니다.

TG 남성 여름 콤비 자켓



사이즈 :
95,100,105,110

가격 :
~~199,000원~~
45,900원

색상 :
체크그레이

소재 :
폴리에스터르 81%
레이온 16%
폴리우레탄 3%

※여러가지 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브랜드 납품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제작 컬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시원한 여름 소재로 비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송료는 3,000원 / CJ대한통운으로 빠른배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교환 및 반품 전 반드시 고객센터로 먼저 접수해주셔야합니다. ※본 상품은 배송료 별도(소비자부담)로 구매가능한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 053) 591-6328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주 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

메디엑스포 코리아 참석 지역 의료산업 지원 검토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는 가운데 첫 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공식 일정 중에는 오후 2시 '메디엑스포 코리아' 개막식 참석이 눈길을 끈다. 이날 행사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 보건의료산업 전시회로, 홍 시장은 개막식 환영사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건강의료산업 시장 흐름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후 오후 3시 30분쯤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임용장 수여를 진행한다. 임용장 수여 대상자는 이종화 경제부시장 등 별정직 7명, 전문임기제 4명, 민간협력관 1명 등 총 12명이다.

오후 5시부터는 이달 6일 열리는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관련해 경제국 보고를 받고, 참석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공무원 노조·충혼탑 참배 지방시대 주도 의지 피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도청 동락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제33대 도지사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이 지사는 오전 8시 30분 경북도 간부 공무원과 함께 안동충혼탑을 참배하고, 오전 11시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기자실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후 3시 열리는 취임식에서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이 지사는 사전 배포한 취임사에서 "지난 민선 7기, 4년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뛰어온 시간"이라며 "민선 8기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찍 결혼해 아이 낳고 기르는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학생들과 등굣길 동행 현장 방문 내실형 행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일 새로운 임기 첫 날 학교 현장을 살피며 '내실형 행보'에 나선다. 아침 학생들의 등굣길을 함께하고, 무더위로 인한 학교 급식 안전 등 건강 문제를 짚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강 교육감은 대구미래학교인 덕성초등학교를 방문해 관악부 버스킹과 함께 학생들의 등굣길을 동행한다. 아침부터 이뤄지는 교육 활동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급식실 위생문제와 관련해 급식 실태도 챙긴다. 강 교육감은 급식 식재료를 직접 검수하는 한편, 무더위에 땀을 흘리는 급식종사원들의 근무환경 등 애로사항도 듣는다.

강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출마 첫 공식 일정으로 학생 등굣길 안전지도를 하면서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었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지역 학교 찾아 현장점검 시대 맞춤 교육정책 소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일 오전 8시 경북 안동 강남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 현장점검으로 재선 임기를 시작한다. "현장에서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재선 취임 첫날부터 실행하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내 과장급 이상 간부인사들과 함께 안동충혼탑을 찾아 제2기 경북교육 출발을 알리는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했던 교육격차 해소 문제와 엔데믹 시대에 따른 변화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18대 경북도교육감 취임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내 웅비관에서 열리며 임 교육감 취임사를 통해 경북도민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교육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지역 현안 해결, 발전 동력 찾아"…기업체·민생 현장 '동분서주'

대구경북 초선 기초단체장 임기 첫 날 각오


윤석준 동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박남서 영주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김하수 청도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김재욱 칠곡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민선 8기 대구경북 초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임기를 시작 했다. 이들 단체장은 첫 날 현충원 참배, 지역 기업체·민생 현장 방문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초선의 패기로 꼬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임기 첫 날 학부모들과 모임을 갖고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동구를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행보를 교육 관련으로 정했다"면서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고 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이날 충혼탑과 6·25 참전기념비를 참배한 뒤 군청 복지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한다. 최 군수는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치와 지향점이 다른 어떤 사람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 8층 군수실을 낮은 층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른 아침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임기 첫 날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외부 행사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인 ㈜SK실트론을 방문한다. 김 시장은 "'새희망 구미시대'를 슬로건으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구미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임기 시작을 지역 랜드마크의 하나인 '선비세상'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복을 입고 취임식에 나설 예정인 박 시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 극복으로 활기 넘치는 영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는다.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시민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명실상부한 대학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종합테니스장에서 취임식을 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구경북의 중심, 군위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통합신공항과 대구 편입 현안 문제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 국민의힘과 손발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날 영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김 군수는 "내 곁의 군수라고 선거 과정에서 외쳤던 것을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군민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영덕 만들기에 군민은 물론 출향 인사도 적극 도와 달라"고 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충혼탑 참배와 취임식, 직원과의 오찬, 유관 기관 방문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김 군수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면서 "지역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젊고 힘 있는 고령'을 군정운영 방침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 군수는 "군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 콘서트를 정례화하겠다"면서 "군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행정 등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취임식과 함께 제28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및 제9대 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한다. 김 군수는 "공모사업과 세일즈 행정으로 칠곡군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우량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 승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오전 9시 사무인수서 서명, 주요 업무 결재를 시작으로 첫 행보에 나선다. 박 군수는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적극 소통해 정체된 봉화 발전을 이끌겠다"며 "참신한 정책 추진으로 1조원 소득의 희망찬 봉화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임식을 오후로 늦추고 오전부터 업무 파악에 나선다. 손 군수는 "군민 화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 울진을 건설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위기의 울진을 희망의 울진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부터 달라지겠다"고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취임식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첫 발을 내딛는다.

남 군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50명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는 "울릉은 크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가가호호 사정을 알 수 있다"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부·사회부 jebo@imaeil.com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 251-1234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국제허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 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독립 매니저 초청★
010-8181-8024 (옥소장 전문직 상담)
대구 중구 태평로 273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대구2008-3호

알뜰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위민행정사
대표행정사 : 박 희 명
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 탄원서, 가정고민, 국가보훈업무, 행정심판, 각종민원서류, 출입국업무
※북한이탈주민 상담 우대
수성구 수성로76길 10 (대구시 교육청 정문앞)
전화 : 010-8562-4962, 633-6016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풀칼라 LED전광판
◆공장도 판매◆
풀칼라동영상시대 / 기존삼색 / 보상매입
시공 / 견적문의 / 상담환영
국제LED ☎ 1877-3166

계령철학원
작명, 사주, 궁합 택일, 사성 풍수 (이장, 가족묘원전문)교육
대한역학인연합회 회장
대구 달서구 죽전로18 (감삼동 46-15)
www.namdosa.com
053-568-2525 (010-3814-0200)

조적(벽돌) 공사 전문
적벽돌, 파벽돌, 큐블럭, 와이드벽돌, 디자인 블록, 농촌 담당(스프릿 블록) 견적 문의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가온건축 (053)-767-0404
대구 수성구 파동로 119

칠·방수
※ DPI 도색 전문 ※
노출 콘크리트 내·외부 시공
건물·주택·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 기계도색, 쫄라톤, 무늬코드, APT 내·외부공사, 실내·외 도색
성진도료(삼화 페인트 대리점)
053)552-7217, 010-3507-7216
대구 서구 내당동 297-18

31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족보문집 50년 전통
大譜社
족보, 문집, 인터넷족보, 번역, 출판물(자서전, 수필집, 홍보지)
daebosa@korea.com
T.053)256-9753 대구시 중구 명륜로44-4

벌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 · 벌초
053)424-6567, 010-8773-6567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가발명장 1호 천 정 일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1+1+1 3장에 39,000원!

가성비 좋은 반팔남방
매일 입기 좋은 남방

기획 특가 3장 39,000원



⑤번

한여름에도 산뜻하고 쾌적하게 입는다
입고 뒹굴어도 구김 없이 깔끔한 품질

체크남방은 고민 없이 입기 편해 자꾸 손이 가는 옷이다. 여기에 착한 가성비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다. '여름 반팔 체크남방'은 여러 벌 장만해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꺼번에 쟁여두고 매일 갈아입기 좋다. 중년을 세련되게 하는 깔끔한 디자인이 어떤 바지와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부드러운 면 35%와 땀을 빠르게 흡수해 말려주는 폴리 기능성 원단을 65% 혼방해, 한여름에도 산뜻하고 쾌적한 품질을 완성했다. 일자형 디자인으로 몸에 붙지 않아 멋스러운 핏이 출근이나 외출하면서 단정하게 입기 좋다. 저녁에 세탁해 널어놔도 다음 날이면 말라 다림질 없이 바로 걸칠 수 있어 편리하다. 가슴 주머니 1개는 단추를 달아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기획 특가 상품으로 500세트에 한해 3장 39,000원에 공급한다.

■패턴 및 무늬■



⑤번 ②번 ④번 ⑪번 ⑫번

3장 1세트 39,000원

네이버에 다심몰 ▼ 검색

제품명 여름 반팔 체크남방 **색상** ②번, ④번, ⑤번, ⑪번, ⑫번 **사이즈** 95, 100, 105, 110
할인특가 3장 ₩119,000 → **₩39,000** 4장 **₩49,000** 5장 **₩59,000**
(택배비 2500원 별도, 5장 구매시 무료배송)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②번 ④번 ⑪번 ⑫번

다림질 없이 걸친다 한여름에도 산뜻하게

잘 때도,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입자
늘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

기획 특가 3장 39,000원

여름에 간편하게 유연한 신축성

편하게 입다가 조물조물 빨아두면 싸악~ 마른다

늘 입기 좋은 티셔츠는 얇고 시원한 원단으로 운동하거나 일할 때, 집에서 편하게 뒹굴고 잠드는 순간까지 편하게 걸치기 좋은 티셔츠다. 입는 순간 청량하게 살을 감싸는 매끄러운 촉감이 일품이다. 내구성이 튼튼하고 땀을 빠르게 흡수해 말려주는 기능성 폴리에스터 92%에, 유연한 스판이 8% 들어가 쭉쭉 늘어나는 신축성도 돋보인다. 목 뒤쪽에는 밴딩을 넣어 수시로 입고 벗어도 볼품없이 처지지않는 품질을 구현했다.



그레이



딥블루



네이버



블랙

제품명 늘 입기 좋은 티셔츠 **색상** 그레이, 딥블루, 네이비, 블랙 **사이즈** 95, 100, 105, 110
할인특가 3장 ₩59,000 → **₩39,000** 4장 **₩49,000** (택배비 2500원 별도)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바람으로 샤워한 듯한 기분
얼음냉수 같은 7부 반바지

할인 특가 2장 49,000원

중년남성에게 딱 좋은 길이와 편한 착용감

'다이나믹 아웃도어 반바지'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로 중년남성들이 편하게 입기 좋다. 더운 계절에도 무릎 밑으로 들이치는 바람을 맞다 보면 바람으로 샤워하는 듯한 청량감에 정신이 맑아진다. 폴리에스터 95%에 스판 5%가 들어가 내구성이 튼튼하고, 격렬한 활동으로 땀에 젖어도 빠르게 흡수하며 짱짱한 스판력으로 거침없이 움직이기 좋다. 허리 양옆에 1인치 늘어나는 밴딩을 넣어 미운 군살은 가리고 착용감은 편해졌다.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벨트가 있어 배가 나온 중년남성도 입기 편하다. 양옆 지퍼 주머니 2개, 지퍼 뒷주머니 2개가 있어 소지품을 보관하기 좋다.



네이비



뒷주머니

1인치 확장형 밴딩 여름철, 달라진 삶의 질

블랙

제품명 다이나믹 아웃도어 반바지 **색상** 네이비, 블랙 **사이즈** 30, 32, 34, 36, 38, 40, 42
할인특가 1장 ₩67,000 → **₩29,000** 2장 **₩49,000**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더 가볍게! 더 탄력있게! 더 쾌적하게!
워킹 高手 '에어쿠션 스포츠 워킹화'

할인 특가 39,000원



남성용_그레이

논슬립 설계로 미끄럼 방지 효과

에어쿠션이 관절을 편안하게, 가볍고 탄성 좋아 오래 걸어도 무리 없다
메쉬 소재와 벌집패턴 인솔로 발에 땀이 차지 않는다

근육은 연금보다 중요하다. 젊은 시절엔 각종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엔 '걷기'가 가장 좋은 근육 저축 운동이다. 하지만 걷기 운동에 적당한 신발을 신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걸을 때는 체중의 2배, 달릴 때는 3~4배 무게가 하체(발목, 무릎 등)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에어쿠션 스포츠 워킹화'는 밑창의 에어쿠션으로 하체에 실리는 하중을 분산해줘 걷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워킹화다. 워킹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쿠션과 통풍이다. '에어쿠션 스포츠 워킹화'는 에어쿠션 밑창을 사용해 오래 걷거나 달려도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없도록 도와준다. 또 '에어쿠션 스포츠 워킹화'의 갑피는 통풍이 잘되는 페브릭 메쉬 소재로 신발 안의 공기를 순환시켜 발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준다. 여기에 EVA 소재의 인솔과 아웃솔을 사용해 탄성과 복원력이 우수하다. 때문에 발가락의 앞코 부분이 접히거나 비틀어져도 처음의 탄성을 유지해 발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특히 벌집패턴의 인솔은 신발 내부의 열기를 밖으로 빼줘서, 오래 걸어도, 많이 걸어도 양말이 쉽게 땀에 젖지 않아 늘 상쾌한 느낌으로 걸을 수 있다. 바닥 창은 접지면 확대 및 울퉁불퉁한 요철 형태의 논슬립 설계로 미끄럼 방지 효과를 높였으며 접지력 또한 탁월하다.

발의 피로도 최소화
발에 땀이 차지않아 걷기에 최적화



남성용_네이비

남녀공용_블랙

여성용_레드

제품명 에어쿠션 스포츠 워킹화 **사이즈** 남_250~280mm 여_230~250mm **색상** 남_그레이, 네이비, 블랙 / 여_블랙, 레드
할인특가 1켤레 ₩59,000 → **₩39,000** 2켤레 **₩73,000** 3켤레 **₩105,000** 4켤레 **₩132,000**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5만원 이상 구매시 3-5개월 무이자)

네이버에 다심몰 ▼ 검색

* 신발로고 tommyatkins와 foursense는 같은 브랜드로 두가지 형태로 출고되며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는 지금…

졸업 후 100% 취업 학과 인기

대구경북 대학 계약학과 분석

채용조건형 재학생 21%↑
끝모를 취업난 돌파구 역할
"반도체 계약학과 늘어날 듯"

취업 절벽시대를 맞아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업 채용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과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학생(재학생 기준)은 늘어난 반면,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학생은 줄었다.

올해 전체 계약학과는 230개로 지난해 234개보다 1.7%, 학생은 8천32명으로 지난해 7천986명보다 0.6%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58개로 지난해보다 9.4% 늘고, 같은 기간 학생은 3천18명으로 지난해 2천537명보다 19%나 증가했다. 반면,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학생은 지난해보다 각각 5%, 8% 감소했다.

올해 대구경북 일반대의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8곳과 재교육형 6곳이다. 계약학과 재학생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은 지난해 375명에서 올해 455명으로 21% 증가했고, 이 기간 재교육형은 275명에서 222명으로 19% 감소했다.

학교별로 보면, 한 해 사이 경일대의 채용조건형 정원이 87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 금오공과대의 재교육형 정원은 150명에서 60명으로 급감했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졸업 이후 취업이 보장되고, 학비와 생활비 지원, 석·박사 과정 연계 등의 이점이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반도체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관련 계약학과 신설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들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가 줄어 계약이 종료된 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4차 산업 인재 양성 학과 추진

대구 직업계 고교 대대적 개편

교육부 추진 공모 사업 선정
5개교에 37억5천만원 지원
"新 산업 수요 맞춘 학과 개설"

대구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경북공고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학과 개설을 추진(매일신문 23일 보도)한다. 첨단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친환경자동차, 패션, 보건행정 등 다채로운 분야로 '학과 재구조화'에 돌입하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경북공고 반도체화공과 등 5개 학교, 8개 학과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직업계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희망 학교를 모집하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교육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는 ▷경북공고 반도체화공과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스마트농생명과, 그린바이오산업과 ▷대구공고 친환경자동차과, 스마트전기과, 스마트융합섬유과 ▷영남공고 스마트패션콘텐츠과 ▷경북여상 보건행정코디네이터과 등이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최소 2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모두 37억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스마트농생명과와 그린바이오산업과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돼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학과는 2024년 신입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 산업사회에 발맞춰 학생, 학부모 및 산업체가 선호하도록 지역 직업계고 학과를 재구조화해 대구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연금복권 720 (제11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700만원x20년	3조	248855
2등	월 100만원x10년	각조	248855
3등	1,000,000	각조	48855
4등	100,000	각조	8855
5등	50,000	각조	855
6등	5,000	각조	55
7등	1,000	각조	5
보너스	월 100만원x10년	각조	458693



변호사사무실 방화 참극 다시는 없어야 30일 대구 중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특별조사팀이 노후 업무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는 변호사사무실 방화 참사 관련 지역 내 노후 업무시설 217곳을 대상으로 소방 점검 및 소규모 건축물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안성완 기자

조유나 양 가족 1차 부검 "사인 불명"

"익사도 배제 못 한다" 의견 덧붙여
체내 플랑크톤·독극물 검사 병행
외상이나 질병 흔적은 발견 안 돼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통해 이들의 사망 시점이 물에 빠지기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양 가족으로 신원이 확인된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익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신이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이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내 플랑크톤 검사 및 약·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하면 사망자가 물에 빠지기 전에 숨졌는지, 물에 빠진 다음 숨졌는지 알 수 있다.

종합검사 결과는 약 한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바다에서 인양한 이 가족의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 감식을 통해 추락 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포항시청서 소주병 던지고 옷 벗으며 난동

60대 취객 경찰에 붙잡혀 연행
李 시장 면담 요구하며 승강이도

30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한 60대 취객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 남부경찰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A(65) 씨가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1층 로비를 찾아 이강덕 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출근하는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에게 붙잡혀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형의 땅이 장기면에 있는데, 자신의 땅도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러 시청을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고향 선배인 포항시장에게 30만원을 빌리려고 왔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MB 시절 댓글 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 '해수 확보' 전쟁

국비 17억 들여 시설 투입에도
한정된 물 용량에 다툼 잇따라
공급 여부 따라 권리금 차이도
市 "그냥 버려지는 물도 상당"



포항 죽도시장 수협 어판장에서 한 상인이 수조에 해수를 가득 받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죽도시장 청정해수공급사업(이하 해수사업)'이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겪으면서 상인간 물 문제로 다투는가 하면 수년째 신규 상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 5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국비 9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해수공급시설을 완공했다. 이후 2019년 다시 8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급시설 확충도 진행했다.

하루 공급용량은 해수를 정수하는 여과기 2기(150~200t/hr)와 저류조(630t) 규모를 감안하면 600톤(t)가량이 한계 수치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해산물 비수기인 하절기에도 하루 소비량이 500~600t에 육박해 상인들 간에 아침·저녁 교대로 물을 받는 등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대게와 문어 등 지역특산물이 쏟아지는 동절기에는 하루 소비량이 700t으로 한계치를 넘어서며 단수가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현재 죽도시장에서는 전체 어류 판매상인 중 90% 정도인 306개 업소(가판 포함)가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죽도시장 한 상인은 "관로가 지나가는 앞구역의 사람들이 물을 막 써버리면 뒷쪽은 하루종일 오줌발처럼 가는 물줄기로 버텨야 한다. 이 때문에 매번 욕설과 실랑이가 적지 않다"면서 "해수공급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최고 몇천만원까지 권리금 차이가 난다"고 귀띔했다.

해수사업이 공급단가는 1t당 1천180원, 한달에 1천500만원가량 수입이 발생하지만 위탁관리 비용과 정비비용 등을 감안하면 매년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포항시는 빠르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까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죽도시장 및 인근 지역 해수 수요량과 개선 방안을 조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물 수요량을 조사했을 때 하루 600t 용량은 기존보다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그러나 막상 공급해보니 싼값에 말 그대로 물 쓰듯이 버리는 상인도 상당하다"면서 "가격을 5년째 동결하고 있는데 인상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승강기 산업 특화·농업 다변화
"내실 다져 강한 거창 만들겠다"

재선 성공 구인모 거창군수
인구문제 핵심 청년 정책 차별화
유입 늘려 도내 군지역 1위 목표



민선 8기 구인모(사진) 거창군수는 재선에 성공한 군수다. 4년 임기 동안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역 특화산업인 승강기 산업과 청년 창업 환경 개선,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명품 교육도시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도내 군부 인구 1위 달성, 예산 1조원 시대와 농업소득 1억원 시대, 산림관광 100만명 유치 등 누구나 살고 싶은 강한 거창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4년 동안 거창군을 이끌어갈 구상은?

▶민선 8기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실을 더 단단히 다져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버틸 수 있는 강한 거창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승강기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치유산업과 스마트 팜, 한방 녹색 농업대학 설립 등 농업 다변화를 이끌어내겠다.

특히, 명품교육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관내 대학생은 물론 각급 학생들에게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의 꿈을 펼치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구증가와 기업유치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군부 인구 2위를 탈환했다. 정주 인구를 유지하고 유동인구를 늘리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인구문제 대응 핵심을 청년층에 두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거창형청년수당,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차별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신원면 신바람 주거 플랫폼 구축 등 기존 시행중인 사업을 확대해 인근 대도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해 인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매년 100억원씩 10년 동안 1천억원 기금을 확보해 인구 6만 명 유지와 승강기, 교육, 산림자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달빛내륙철도 해인사 환승역 유치 공약했는데?

▶달빛내륙철도 노선에 거창역 설치는 당연히 우선돼야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해인사 환승역 유치는 영호남 6개 광역 시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거점간 연결성 강화에 효과가 크다고 본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성,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도 해인사 환승역 설치가 필요하다. 해인사 등과 힘을 합쳐 경상남도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좌우명이나 군정 책임자로서의 소신이 있다면?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이다. 이 말을 가슴 깊숙이 새겨서 군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군정에 반영하겠다.

군정 발전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민선 8기에도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한 번 군수 당선의 영광과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거창 발전의 든든한 주춧돌 세우고 거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된 만큼 선거에서 약속했던 사업들은 말로만 끝내지 않고 실천으로 꼭 보답하겠다.

거창군의 8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민생 군수가 되어 전국 최고의 거창을 만들어 갈 것을 군민들께 약속드린다.

이상재 기자

3년 만에 달리는 '영주 시티투어 버스'

매주 토·일요일 총 3개 코스 운영
풍기인삼 엑스포 기획코스 준비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주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3년 만에 재개한다.

영주시티투어 버스는 버스를 타고 영주의 핵심 관광명소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영주시는 7월부터 매주 토·일요일마다 선비코스와 힐링1·2코스 등 3개 코스를 운영한다.

선비코스는 영주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도록 ▷부석사 ▷소수서원·선비촌 ▷종복원센터 ▷특산물시장(전통시장) ▷관사골 및 부용대를 거친다.

힐링1코스는 죽령옛길 걷는 코스를 시작으로 ▷무섬마을·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부석사 ▷소수서원 ▷특산물시장(전통시장)을 지난다.

힐링2코스는 산림치유 체험 코스로 ▷무섬마을·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부석사 ▷소수서원 ▷국립산림치유원 ▷특산물시장(전통시장)을 둘러보게된다.

또 정기코스 외에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되는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기간에는 엑스포 행사장과 선비세상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기획코스도 준비중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4천원으로 관광지 입장료와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성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종량기 설치된 읍·면 소재지 대상
kg당 수수료 35원…·카드로 납부

경북 성주군이 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격 시행한다. 시범운영에 들어간지 6개월 만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했지만, 이달 1일부터는 kg당 35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종량제 시행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이하 종량기)가 설치된 읍·면 소재지로 국한된다. 배출 수수료는 경상북도내 군지역 평균 수준이다. 군은 수수료 책정을 위해 물가조정위원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종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개인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전용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무료 발급해 준다.

성주군은 올 1월부터 성주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철거하고 종량기 300대를 설치해 주민들이 종량기 사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해왔다.

설치된 종량기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RFID방식(무선인식)의 최신 기기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군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

경주 신라 천년 스토리텔링 문화공모전



'경주 신라 천년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신라 천년의 문화컨텐츠 발굴을 위한 '신라 천년 스토리텔링 문화공모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재는 경주의 신라 문화재, 전설·설화, 자연경관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부분은 단편소설입니다.

- **접수기간** : **7월11일(월)~8월16일(화)까지**
- **출품자격** : 누구나(내·외국인, 연령제한 없음) ※연락처 및 주소 등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출 품 수** : 1인1점(편) ※응모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분 량** : A4용지 10pt 8~10장 안팎(개요제외, 자유양식, 200자 70장 안팎), 작품 소개부문 A4용지 1/2페이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보 낼 곳** : **매일신문 문화부**(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 편집국 문화부: 053-251-1740, 010-9569-9802)
-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인원	상 금
대상(경상북도지사상)	단편소설	1명	700만원
최우수상(경주시장상)	단편소설	1명	500만원

상 명	부 문	인원	상 금
우수상(경주문화재단대표이사상)	단편소설	2명	각 150만원
장려상(매일신문사장상)	단편소설	4명	각 50만원

※상금에 대한 재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이며,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시 상 식** : 8월 하순, 또는 9월초

• 주 최 : 경주시 • 주 관 : 매일신문 • 후 원 : 경상북도

※자세한 사항은 매일신문 홈페이지(www.imaeil.com) 참조



Ordinary Days of **BALENKEY**
- Together Balenkey -

37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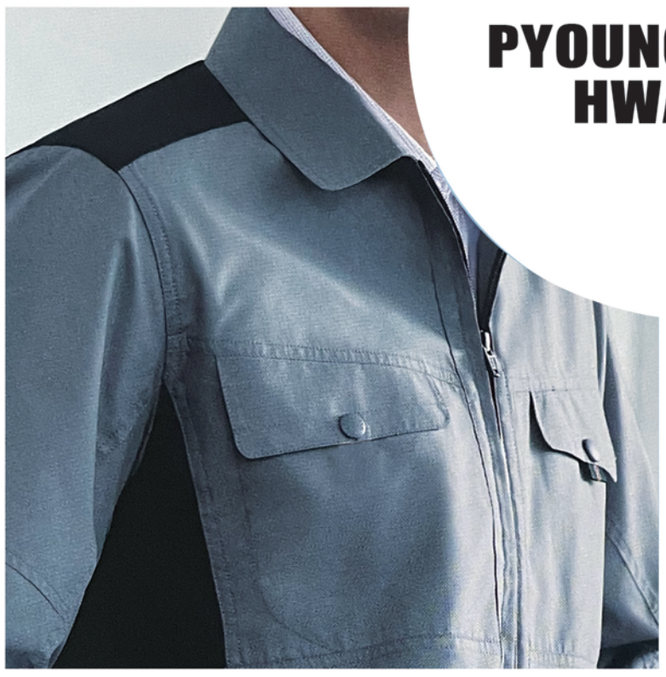
정직한 기업, 우수한 품질, 다양한 제품들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CHNICAL MULTI SPORTS 2022 COLLECTION

PYOUNG HWA





기업전문 단체복 제작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국내유수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업홍보용, 근무복, 단체복 제작가능

Balenkey
골프웨어 아웃도어 발 렌 키

단체복주문제작 / 대표문의전화 : 053-552-7088

DGB Index 〈30일〉

코스피	2,332.64	(−45.35P)
코스닥	745.44	(−16.91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550	(−0.002%P)
환율 (원·달러)	1,298.4	(−0.6원)
금값 (1g)	75,960	(+30원)

DGB대구은행 DGB
증권연계계좌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증권연계계좌로 가능
+체결전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51호 (2021.04.01~ 2022.03.31)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대구 요구 자격 충분"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체제의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는 이종화(54)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체제의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이종화(54)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최소한 부산의 가덕신공항과 같은 (국비 건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예산실 근무 경험도 있는 등 재정 전문가인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추진은 민선 8기 대구 시정 정책 공약 중 핵심 과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과 달리 국비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된 관문공항·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향후 대기업 유치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제부시장은 "이제 기업이 제 발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공항은 대기업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벤처 생태계도 키워야 한다. 대기업들은 벤처가 잘 구축돼 있는 지역을 원한다.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동대구벤처밸리 기능도 좀 더 과감성 있게 추진됐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구의 밑뿌리를 확실하게 만들고 문을 열어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洪체제 초대 경제부시장 이종화

가덕공항과 형평성 문제 지적
예산 확보 市 적극적 노력 필요
국회의원과 원팀 돼 설득해야

기재부 잔뼈 굵은 재정 전문가
5대 미래산업 구상·실현 최선

대구 경제 상황에 대해선 "지역 내 생산은 안 되고 인구는 빠져나가고 대기업은 전무하기 때문에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구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28년째 꼴찌인데 소비는 꼴찌가 아니다. 즉 대구 시민들이 돈을 밖에서 벌어서 안에서 쓴다는 의미"라면서 "대구 안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대구시 공직자들을 향해선 '개방성'과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 경제부시장은 "2014~2015년 2년간 기재부 예산실에서 근무하며 대구시 예산을 챙긴 적 있다. 당시 대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 템포 늦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서 "대구가 더 열려야 한다. 과거에는 섬유도시로 매력적인 도시였으나 지금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뭘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대구시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 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도 분절적 공조가 아닌 유기적 공조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지역 현안과 사업에 있어선 여야 의원이 말 그대로 똘똘 뭉친다. 여당과 야당이 원팀이 돼서 협력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는 것"이라며 "대구는 모두 여당 의원들인 만큼 부산보다 사실 더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포부와 계획에 대해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과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 경제부시장은 "제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맡은 바 일을 차질 없이 해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새 시장님이 대구에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저는 그것이 최대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대구가 변화의 흐름을 잘 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제부시장은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장, 개발금융국 국장,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등을 지냈다. 역대 대구시 부시장에 기재부 경제관료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취임 당일인 7월 1일 오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별도 취임식은 생략하고 취임 직후 제3 산업단지, 옛 삼영초교 부지 복합개발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현안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방한 관광객 1년새 2배 출국 한국인은 4배 급증

지난달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방역 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관광공사의 '5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5월 방한 관광객은 17만5천922명으로 작년 5월의 7만4천463명보다 136.3% 늘었다.

출신 국가를 보면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4만2천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1만4천119명), 중국(1만1천253명), 태국(8천772명), 싱가포르(6천772명), 인도네시아(5천643명)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본과 대만 관광객은 각국의 입·출국 제한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각각 163.8%, 125.2% 증가했다.

홍콩 관광객은 현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223.2% 늘어났다.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온 관광객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달 출국한 한국인 관광객은 31만5천945명으로 작년 동기(7만5천416명)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연합뉴스

대구 광공업 생산 7.3% 반등…건설수주액은 75% 감소

5월 경북 건설수주액 47% 증가

5월 대구경북의 광공업 생산·출하는 증가하면서 4월보다는 지표가 나아졌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지표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3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대구경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광공업 생산지수(2015=100)는 106.2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 4월 1.3% 감소했지만 5월에 다시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6.1%), 1차금속(−9.7%), 금속가공(−1.3%)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13.5%), 의료정밀광학(46.9%), 기계장비(6.9%) 등에서 증가했다. 광공업 출하는 7.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3.8% 늘었다.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기계장비(−6.6%), 섬유제품(−9.7%), 의료정밀광학(−33.8%) 등에선 재고가 줄었지만 1차금속(32.0%), 금속가공(12.2%), 종이제품(27.5%) 등에서 재고가 증가하면서다.

대구의 5월 건설수주액은 1천46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1% 감소했다. 신규 주택, 재건축 주택 등 건축 부문에서 59.2% 준 데 이어, 도로·교량, 상·하수도 등 토목 부문에서도 94.8%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의 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015=100)는 111.9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는 6.3% 늘고 대형마트 판매는 8.4% 줄었는데, 음식료품 등의 판매량보다 가방·의류 등의 판매량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경북의 5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4월(−6.7%)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완화된 모습으로, 자동차 부품(15.3%), 고무 및 플라스틱(20.3%)의 생산이 늘어난 까닭이다. 출하 역시 1.3% 늘었다.

다만 제조업 재고는 16.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 지수는 127.4로 3월(124.6)과 4월(125.7)에 이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북 건설수주액은 7천2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2% 증가했다. 신규 주택·공장 등 건축 부문에선 5.7% 줄었지만 토목 부문에서 발전·송전, 상·하수도 등 수주가 많아지면서 220.3% 급증해서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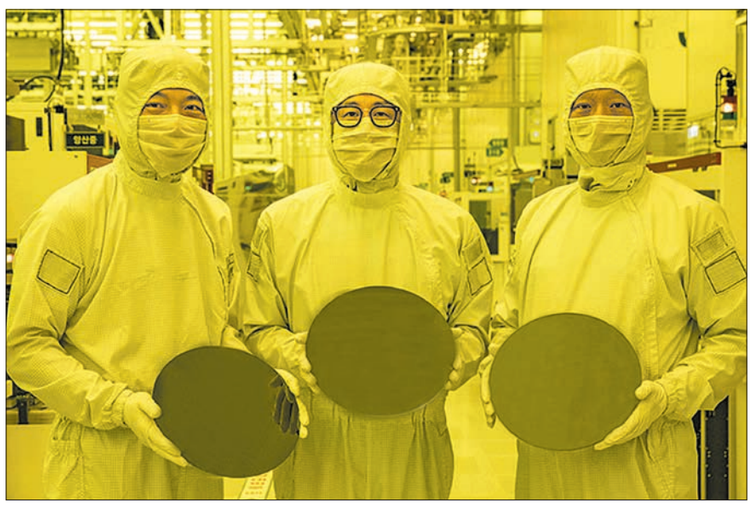
심의필번호 : 제151023-중-29959호
홈페이지 대구유림한의원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조루·성욕감퇴
피로·지구력 부족·낭습·수족냉증·정액결핍
무리한 성생활로 신휴하면 건망, 불면, 현기증, 이명, 오심번열, 무기력, 자신감 결여 등이 올 수 있다.
몸이 피로하고 성기능이 떨어지면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 말고 조기치료를 하시오.
43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력증강과 피로를 풀어 신기를 튼튼히 하여 성생활 개선은 물론, 건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전립선염·비대
야간뇨·빈뇨·잔뇨·무력뇨·급박뇨
유뇨·회음부통
소변의 고통이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괴롭지만,
치료는 잘 안되고 특히, 전립선염은 재발까지 잘 된다.
치료를 게을리 하면 신·방광 등이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43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원인과 증상을 면밀·분석하여 허한 신기를 도와 소변의 불편은 물론 성기능 저하도 개선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감퇴된 성욕과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조루치료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생활의 활력을 유림한의원에서 찾으십시오.
유림한의원 원장 조 남 학 대구 남구 대봉로 19길 20-2(구.남도극장 앞) 상담문의 053.474.5166

삼성, 3나노 공정 양산 시작 업계 1위 TSMC 따라잡을까

〈대만〉

시장 최초로 GAA 기술 적용
전류 흐름 더 세밀하게 제어
차세대 반도체에 활용 계획

현재 판세 뒤집을 '히든카드'
글로벌 IT업체들 잠재 고객
안정적인 수율 뒷받침 필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정원철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 구자흠 부사장, 강상범 상무(왼쪽부터).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양산을 30일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메모리 분야에 이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삼성의 '초격차(압도적 격차) 전략'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GAA 기술 적용 3나노 세계 첫 양산

삼성이 양산을 시작한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다.

3나노는 반도체 칩의 회로 선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3 수준으로 좁힌 것으로, 회로의 선폭을 가늘게 만들수록 더 많은 소자를 집적할 수 있어 성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삼성은 이런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기존의 '핀펫'(fin-fet) 기술 대신 업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했다.

반도체를 구성하는 주요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구분되는데 GAA는 핀펫의 3차원 구조와 비교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인 채널의 아랫면까지 모두 게이트가 감싸 전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핀펫이 가지는 3나노 이하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차세대 파운드리의 '게임 체인저'로 꼽혀왔다.

삼성전자는 이에 더해 채널을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Nanosheet) 형태로 구현한 독자적 MBCFET(Multi Bridge Channel FET) GAA 구조를 적용해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게 했다.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은 45% 절감되고 성능은 23% 향상됐으며, 면적은 16% 축소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내년에 나오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은 전력은 50% 절감되고,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될 예정이다.

GAA 구조의 트랜지스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고성능과 저전력을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3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HPc)용 시스템 반도체를 초도 생산했으며 앞으로 모바일 시스템온칩(SoC)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 TSMC 따라잡을까

삼성전자가 이처럼 초미세 공정 개발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다.

2017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업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큰 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은 TSMC가 53.6%였지만 삼성은 16.3%에 불과했다.

이처럼 굳어진 판세를 뒤집기 위한 '히든카드'로 3나노 공정이 꼽혔고, TSMC보다 앞서 3나노 양산을 시작한 것이다. TSMC는 올 하반기에 기존 핀펫 기술을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7나노 이하 미세공정을 제공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TSMC뿐이다.

위탁생산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퀄컴과 AMD 등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들은 첨단 미세공정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설계하는 팹리스들은 매년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만큼 최첨단 공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이 증가해 최첨단 공정(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3나노의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서고 2025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삼성전자가 선제로 GAA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면서 애플, 인텔, 구글, AMD,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향후 삼성의 잠재 고객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먼저 선보였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시장 점유율이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뒷받침돼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국내외 의료산업 트렌드, 여기 다 모였다!

'메디엑스포 코리아' 오늘 개막

기업 400곳 1천개 부스 '지역 최대'
시민 건강강좌·체험부스도 진행

국내외 의료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대 규모 의료산업분야 전시회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건강의료산업전을 중심으로 첨단의료기기전, 의료관광전, 한방엑스포, 치과기자재전 등이 열린다.

동·서관 전시면적 2만5천㎡에 400개사, 1천개 부스가 참가해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다. 스마트 의료·헬스케어를 테마로 한 이번 전시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산업 트렌드를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개막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첫 공식행사로 참석한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기업과 기관의 수준이 크게 높아져 주목받는다.

신규 론칭하는 첨단의료기기전(KOAMEX)에는 씨젠,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메디슨, 지멘스헬시니어스, 루트로닉 등 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기관이 부스를 운영한다.

해당 기관과 기업 섭외를 위해 양진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는 후문이다. 양 이사장은 "좋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통해 전시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영상진단기(CT, MRI)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지난해보다 부스 규모를 확대해 참가한다. 디지털 X-ray 국내 1위 기업인 DK메디컬, 산과 초음파 세계 2위 기업인 삼성메디슨, X-ray 분야 세계 판매량 1위 기업인 디알젬이 참여해 첨단기술 각축전을 벌인다.

EMR분야 국내 1위 기업인 유비케어, 의료메타버스 솔루션기업인 메디컬아이피, 의료분야 빅데이터시장에 뛰어든 네이버클라우드, 등 역대 최고 기업도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올해 전시회 공식 후원사인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씨젠의료재단은 원스톱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씨젠 모바일 랩'과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씨차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양재진 원장 초청 '힐링 토크 콘서트'(2일 오전 11시) 등 의료계 종사자와 일반시민을 위한 건강강좌, 체험부스 운영, 시민건강교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시원하게 잠이 솔솔~ 대백프라자는 지하 1층 이벤트 행사장과 9층 리빙관에서 '열대야 타파 홈패션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구 브랜드 '아이리스'는 소재와 촉감 등을 통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침구류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통기성 좋은 모달 침구, 열대야에도 시원한 식물성 섬유 인견 제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대구백화점 제공

외국인·기관 매도에…코스피 2,330대 추락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30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탓에 2,330대로 가라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35포인트(1.91%) 하락한 2,332.6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42포인트(0.40%) 내린 2,368.57로 개장해 장중 낙폭을 키웠다.

지난 27일 급락세를 떨치고 2,4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최근 연이틀 1% 이상의 하락을 거듭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40억원, 3천204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천2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떨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된 것도 국내 증시를 위태롭게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03.7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전 거래일보다 0.6원 내린 1,29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연고점은 지난 2009년 7월 14일 기록한 장중 고점(1,303.0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약 13년 만의 최고치였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입 속 상쾌함 껌 대신 젤리



28일 찾은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 앞 윗자리의 중앙 매대엔 스틱·환으로 된 숙취해소제와 홍삼스틱이, 그 옆 가장자리는 젤리류가 자리하고 있었다. 편의점 계산대 앞 매대 1번지의 상징이던 껌은 2, 3번째 매대로 내려가 있었다. 편의점 직원은 "숙취해소제나 홍삼스틱은 1주일에 3~4번, 젤리류는 1~2번 정도 채워 넣는다"면서도 "껌류는 거의 잘 채워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28) 씨는 한동안 '껌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 했다. 학창 시절 구취 제거를 위해 1주일에 3, 4번은 씹었지만, 대학생 이후 구강청결제로 갈아타면서부터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면서 구취에 대한 걱정이 줄기도 했다. 최 씨는 "계속 씹다가 턱관절이 당길 것 같아 앞으로도 일부러 찾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단순히 맛을 즐기기 위한 목적보다 구취·충치 제거 등 기능성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껌이 점차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젤리가 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껌은 마스크와는 상극이어서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도 2000년대 전성기로 돌아갈 것 같지도 않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가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천210억원이었던 국내 껌 시장은 지난해 2천54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어 오는 2025년엔 2천500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때 남녀노소 즐겨 씹던 껌이 왜 외면받고 있을까.

◆껌의 대체식품 젤리

우선 입 안 상쾌함을 위해 '씹고 뱉는' 껌 소비가 '씹고 삼키는' 젤리 등 사탕류로 옮겨가면서다. 단물이 빠지고 딱딱해질 때까지 씹는 껌과는 달리 적당히 씹고 맛본 뒤 삼킬 수 있는 젤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2015년 국내 껌 시장 3210억원
지난해 2540억원까지 줄어들어

마스크 쓰면서 씹은 후 뱉기 불편
맛본 뒤 삼키는 제품류 인기몰이

후레쉬민트 재출시 1년 만에 중단
수박바·죠스바 등 리뉴얼한 젤리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80% 급증

실제, 국내 사탕류 시장 규모는 껌 시장과 반대 그래프를 나타낸다. 2015년 5천580억원이던 사탕류 시장 규모는 작년 7천360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5년엔 8천19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껌 시장보다 1.7배 크던 사탕류 시장은 2025년엔 3.3배 격차가 나게 되는 것이다.

국내 껌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해태제과와 오리온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3사의 껌 제품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롯데제과 껌은 2005년 출시했던 '블루베리'도 단종되는 등 점차 사라지면서 지금은 '자일리톨'·'쥬시후레쉬'·'아이디'·'후라보노' 등 11종만 남았다. 해태제과와 오리온은 각각 4종만 유통·판매되고 있다.

하락세던 껌 시장에 기름을 부은 건 코로나19다. 그나마 구취·충치 예방 등 기능성으로 이용되던 껌 소비마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씹기 불편한 까닭에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GS25에 따르면 편의점 껌·캔디·젤리 중 껌 판매량 비중은 2019년 20.4%에서 2020년 15.7%로, 작년엔 13.1%까지 줄었다.

엔데믹(풍토병화) 시대가 왔지만 껌에 대한 소비자 기호는 이대로 굳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껌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은 좋은 구실일 뿐"이라고 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대체 간식의 다양화로 껌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했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업계도 껌보단 젤리 같은 간식의 이색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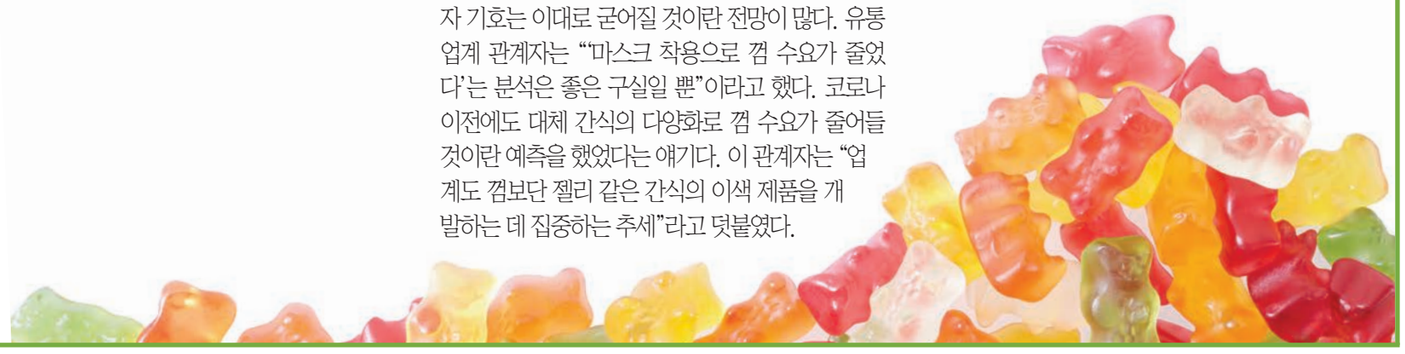
◆껌 신제품 출시는 '글쎄'

오리온은 지난 27일 '와우'에 색깔을 입힌 풍선껌으로 리뉴얼 출시한다고 밝혔다. 검은색 풍선을 불 수 있는 '와우 블랙레몬'이 작년 11월 출시된 데 이어 기존 3종인 '탱글포도'(초록색), '쿨소다'(파란색), '톡톡콜라'(빨간색)에도 색깔을 입히겠다는 것이다.

롯데제과가 1972년에 내놓은 '후레쉬민트'는 지난 2017년 단종됐다가 4년 만에 다시 나왔다. 하지만 재출시 1년 만인 올해 또다시 유통·판매를 중단했다. 업계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관심을 닫고 있는 '껌'이라는 기호식품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껌을 판매하는 빅 3사는 하향곡선을 그리는 껌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젤리 같은 전망 좋은 사탕류 제품 출시에 더 열심이다. 오리온은 포도젤리 브랜드인 '마이구미'에 '알맹이 시리즈'(자두·포도)를 지난 4월 선보인 뒤 지난달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0% 급증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수박바'·'죠스바' 등 자사 대표 제품을 리뉴얼해 만든 젤리를 내놓은 데 이어 작년엔 '죠스바 아이스 톡톡 젤리'를 내놨다. 해태제과는 과자 '후렌치파이'를 본뜬 '후렌치파이 젤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대구 이월드에서 이달 23일과 8월 6일 오후 9시 '환상의 코스 불꽃 쇼'가 진행된다. 이월드 제공

낮엔 시원하게 서핑 밤엔 오싹 공포체험

이월드 여름 시즌 이벤트 풍성

대구 테마파크 이월드는 여름 시즌을 맞이해 물놀이 등 즐길 수 있는 7~8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월드는 야외형 인공 서핑 머신을 설치해 도심 속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을 마련했다. 또 수영장 '아쿠아빌리지'를 조성해 수심 1.2m부터 어린이 전용 풀장을 준비했다.

야간에는 호러 어드벤처 '좀비 스테이션'이 진행돼 좀비들을 만날 수 있다. '고스트하우스'와 '죽음의숲' 체험 존이 마련됐고 호러 존인 '어드벤처 광장'에선 좀비들의 퍼포먼스를 구경할 수 있다.

7월 첫 주말인 2일부터는 3D 영상 전용 상영관인 '매직시네마'가 열린다. '매직시네마'는 입체 안경을 착용하고 3D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전용 상영관이다. '매직시네마'는 136석 규모의 상영관으로 대형 스크린과 입체 사운드 스피커를 갖췄다.

오픈 상영작으로 토이스토리 제작진의 초대형 해양 매직 어드벤처인 '매직 아치'가 한 달간 상영될 예정이다. '매직 아치'는 깊은 바닷속 돌고래 '델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또 7월 23일과 8월 6일 오후 9시 '다이내믹 광장'에서는 음악에 맞춰 수천 발의 폭죽이 터지는 '환상의 코스 불꽃 쇼'가 진행된다.

이월드 관계자는 "재미도 찾고, 무더위도 쫓아버릴 수 있는 이월드에서 온 가족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1·2종, 대형, 2종소형, 견인차 자체시험
(츄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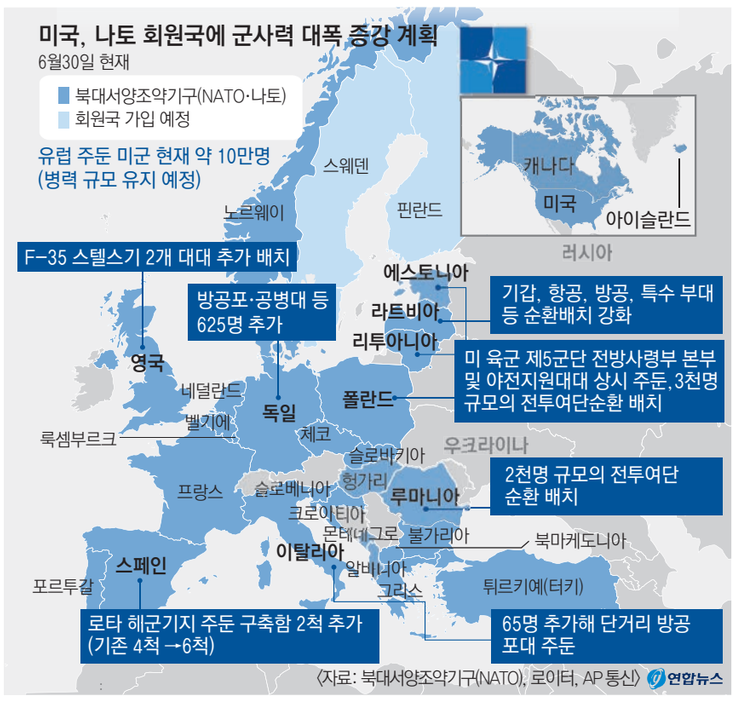
- 54년 전통의 대구 최고 명문학원(since1968)
-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 KCIA한국소비자산업평가기술(운전)부문 1위 선정
- 공원 같은 쾌적한 교육장
- NAVER 대구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검색
- 학원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시험칩니다!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팔달교옆 (3호선 팔달역앞)
053-314-8888

나토 '냉전 수준' 병력 증강 계획…푸틴 "맞대응" 경고

신속대응군 기존 4만명→30만명
"러, 심각한 위협" 전략개념 채택
"中정책 나토 가치에 반한다" 지적

바이든 "미군 증원하겠다" 밝혀
핀란드·스웨덴도 가입 절차 시작



유럽과 북미 지역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절차를 개시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이에 러시아는 나토가 새로 가입한 두 국가에 군부대를 주둔하면 똑같이 위협하겠다고 경고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나토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러시아를 "회원국의 안보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기술한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했다.

전시에 대비해 전방에 군사 장비와 물자를 더 비축하고, 동부 지역에 배치된 전투단을 여단급으로 강화하며, 신속대응군(NFR)을 기존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사전에 부대를 지정해 특정 동맹국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어계획 수립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미 주둔 병력을 2만명 늘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과 "집단 안보 강화"를 이유로 들며 나토 지역에 미군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으로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첫 번째 표적인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 현대식 포병 전력 등을 요청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나토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우리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화답했다.

정상회의에는 지난 70여 년간 중립 노선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청해 양국의 나토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나토는 성명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하면서 "두 나라는 더욱 안전(safe)해지고, 나토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유럽과 대서양지역은 더 단단(secure)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러시아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제국주의 야심을 드러내려 한다"고 비난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시설을 그곳에 배치하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영토에 대해 같은 위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北 암호화폐 해킹 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

총 가치 약 16억 달러에 달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 해킹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컵'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분석한 '전 세계 암호화폐 범죄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북한 당국이 양성하는 7천여 명의 전문 해커들이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당국이 해커집단을 직접 관할한다는 점에서 개인 해커들 위주인 다른 국가의 해킹 사건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코인컵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부터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해킹을 시작해 올해까지 탈취한 암호화폐의 총 가치는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관계 강화 찬성" 日 참의원 후보 74%

요미우리신문 여야 491명 조사
"러시아와 관계 강화 반대" 과반
"방위비 늘려야 한다" 68% 달해

오는 10일 치르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 4명 중 3명은 한일 관계 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참의원 선거 여야 후보자 49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44%, 반대가 41%로 엇비슷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해선 반대가 61%에 달했고, 찬성은 26%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쟁점을 세 가지까지 꼽으라는 질문에는 경기·고용대책(50%), 외교·안보(45%), 교육 무상화(25%), 헌법(20%),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20%)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방위비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68%에 달했다. "지금 상태가 좋다"는 12%, "줄여야 한다"는 19%였다.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후보자 대상으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얼마나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냐'고 추가 질문한 결과, "GDP 1% 초과 2% 이내"(47%), "GDP 2% 초과 3% 이내"(24%), "GDP 3% 초과"(22%)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연합뉴스



일본 올해 첫 출하 앞둔 '사각 수박'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 젠츠지시에 30일 사각형 모양 수박이 올여름 첫 선적을 앞두고 있다. '시마오'(縞王)라고 불리는 이 사각 수박은 주로 관상용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일반 수박보다 약 5배 비싼 1만 엔(약 9만4천988원) 정도다. 연합뉴스

에콰도르 재차 비상사태 탄핵 면한 대통령이 선포

격화하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에콰도르 대통령이 일부 지역에 재차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9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소통비서관실은 이날 아수아이, 임바부라, 수쿰비오스, 오레야나 등 에콰도르 24개 주 중 4개 주에 한 달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보안 구역'을 설정해 질서 유지 명목으로 무장 군을 배치하거나 주민 시위 금지를 선언할 방침이다.

라소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지역은) 연료 공급망이 밀집한 곳으로, 그간 가장 큰 폭력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 시설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인부동산

서 구

대동부동산 서윤희,서구564-8200)27170-2022-00031

하빈봉촌리공장 도로 10M
마당넓은집 대1200,건500 당175만원
(투자 적지) 010-9007-8283

月1950 대720,건2170,주차완벽 37억인수,프랜차이즈X
스타벅스 月2000만,건380 최고상권,대로코너
35억인수(초역세권)010-2509-9996

남대구I·C 준공업지역
공장 대3,830㎡, 1,850㎡ 당1,000만
매물접수 053) 284-0118

안의 용추계곡 펜션+ 가든
용추계곡 최고 명당자리,시설완벽 몸만가서 장사하면 됨, 매20억 (조정불가) 053)284-0188

대지부동산 임유현,서구561-6561)27170-2016-00067

카 모텔,3억인수(융13억有) 대260,R18실,주택有,동구
모텔 사우나 7억인수(융有) 직영중,시설양호,대 270,상가240만수입 053)561-6561

모 텔,12억인수(융有),R38 대320,시설 및 매출양호
모텔 12억인수,(융有),대215 룸36실, 매출5500 상가수입900별도 053)561-6561

모 텔13억인수,융有,대209,R33 배관까지올리모델링,매출5500
호텔 23억인수(융有) 대350 룸48,준신축 시설최상 053)561-6561

호 텔26억인수융有 대3100,R53 실,신축수준,매출1억이상
콘 도,33억 인수,(융有) 최고위치,년매12억이상 임대수입 별도 053)561-6561

메디컬,상가부지
30M 코너,준주거2,864㎡(866) 당1,400만, 원대역도보5분
화원(350) 당400만 053)719-4095

대농부동산 김영기,서구521-4949)27170-2019-00025

모텔매매 17억 대2,260㎡
객실46,(융.보별) 月매1억이상
★모텔 매매, 20억, 1110㎡, 객36 (수선용)위치최상 053)521-4949

모텔매매 7억(융별) 대775㎡
객실30, 역주변
★모텔, 10억(융별)대1066㎡,객실35 터미널 주변 최상 053)521-4949

청통IC "땅"공장부지 임야(9800) 당5.5천
공장부지(1200)(1500)(3100)당63만 (1800) 당55만, 대(1100) 건272
매가14억 053)557-8288

온누리부동산 양현석,서구20일-공사공)27170-2020-00012

2호선 코너 통상가
35억/月1470出 E/V有 주차장
목좋은 황금상권 010-5432-9578

대단지코너상가주택
9억/月302 出,주차장有,도시가스,대191㎡
임대걱정없는상권 010-5432-9578

시세이하카페건물
투자금15억 매13억 방갈로와
멋진뷰,대1792㎡ 010-5432-9578

카페 계곡접 현풍
5,600㎡, 3.3㎡ 당170만
카페 가창 4차선접, 계곡접 2,080㎡,3.3㎡ 당600만
053)572-0408

★6억인수,月370만
시장코너, 시세이하, 3층 통상가 대319㎡, 급매, 유동인구 완전 많은 정말 탐나는 상권 010-9357-5675

★9억인수,月720만
5층통상가,대로네거리코너,대234㎡ 올수리, 주차장, 엘베有, 유동인구多 특급 상권 010-9357-5675

月300,3층상가주택
대228㎡,수익성 안정된 상가,20m
매8억3천 노후 보장 연금식 010-6435-2556

13억싼 고수익상가
감정42억,시세50억,매37억,융자無 보1억/月1800만出,공실無,대로코너 대1425㎡,건1987㎡ 053)572-0409

독점프랜차이즈상가
月1100 26억인수,대796.6㎡ 건1411.5㎡, 대도로 코너,손님바글바글 053)572-0410

月1887出6층통상가
대674㎡, 건2578㎡, 보.융20억
인수38억 010-9760-5069

2호선코너특급상가
22억 月801만 목좋은 노다지 황금상권
대349㎡,건1022㎡010-9760-506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중심상업지35M코너
통상가 횡단보도앞 주상복합 대단지 초인근
대660㎡,59억 010-8896-4599

초역세권 전면최상
통상가 대565㎡,역출구앞 특급바글상권,공실無
39억,月1,600만 010-8896-4599

시세이하 대도로
통상가 특급전면,특급개발호재 투자가치100%
대387㎡,17억 010-8896-4599

5%일반상업 특급 상가
42억 月1700만, 융자無 초 대단지앞
공실無,대590㎡ 010-8896-4599

초초급매3층통상가
서대구 KTX 관통 7차선 대도로 전면1등,대지390㎡(118),매22억→ 몽땅19억5천 010-4250-7711

달구벌대로 통상가
및 나대지, 50억~300억 달서구, 수성구, 초역세권 A급물건,다량확보 010-4501-3935

다이소入4층통상가
보2억5천, 月1670만, 대745㎡ 신축급, 20억5천인수 전속중개 010-3134-9375

★대구 최요지 상가
브랜드 본사 장기계약, 보2억
月2200만 35억인수 010-3134-9375

★달서로6차선 단층
상가 대1240㎡,명도가능,병원 골프스크린,사옥적지,초 급매,당1700이하 010-3851-5504

(주)삼성부동산 조정현,서구568-8989)가-13-1978

특급상가 몽땅48억
대744㎡, 건1,625㎡, 月1670 出 대로코너,다이소,스크린,유명프랜차이즈入,사정상급매 010-2234-2892

특 급매 상가175억
대5498㎡, 건4395㎡, 2호선초역세권, 대로코너 시세이하 매매, 돈벌수 있는상가,상담환영010-2234-2892

급매매 상가 75억
대1464㎡,건3572㎡, 초역세권 병원 프랜차이즈 최적, 시세이하, 사정상 급매, 투자상담환영010-2234-2892

시세(감정)이하모텔
11억 (융有), 룸39실 대1,551㎡, 건2,584㎡
053)568-8989⑪

★초대단지통상가
25억 月1165만,1만세대 역세권, E/V, 대512㎡
건1214㎡ 053)568-8989⑪

月290,4층상가주택
대235㎡ 아파트정문최요지 수익성 안정된 상가
매12억5천 053)568-8989⑪

모텔 급매 대1171㎡, 방33 몽땅75억
대1251㎡,3층통상가,투자or재건축 용의/대302㎡,3층상가, 주30×20 月560,22억 010-8029-8118

3층 통상가
대지815㎡, 대로변 교통 최요지 당1630만, 귀한매물 감정이하, 15억인수 053)557-9770

2호선"4층통상가
더블역세권대단지A
月320만 몽땅18억 053)557-9770

2호선"5층통상가
역세권 대단지A
월1200만,18억인수 053)557-9770

3층 통상가
대1560㎡, 대로 30m 코너상가 유명프랜차이즈, 일부는 신축가능 月3300만, 56억인수 053)557-9770

모텔"방10개.상가2칸
직접 운영 하실분 추천"합니다 3층, 대로 25m코너, 올수리 월600만+5억인수 053)557-9770

4층 상가 주택
재개발A코너 올수리 엘베有
月572만,몽땅16억 053)557-9770

月1800지하철출구접
대지809㎡, 건2,099㎡
25억 인수,동구 최요지 통상가 010-6547-4488

月9500전층약국병원
대1845㎡,건11,999㎡,100억인수 약국+병원7개,5만세대 최요지 사거리코너최요지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땅!땅!
대810㎡,건2,900㎡,당6,000만 범어사거리최요지,약국+병원 할 빌딩 010-6547-4488

月4700전층병원빌딩
45억 인수,대899㎡,건3309㎡ 전층 약국 병원
대로접 최요지 010-6547-4488

月6000대형마트매매
대2636㎡, 건3990㎡, 月6천만 순수익,25억인수,일매출1800만,보2억 月2000만出 010-6547-4488

月1500,몽땅39억
대583㎡,건1269㎡,12억인수 대단지 정문 최요지 공실무,신축 010-6547-4488

팔공산IC공장
공항이전 대531㎡ 건194㎡ 수혜지역,조용한 입지,대형차진입 可,매7억7천 010-8062-6776

팔공산전원주택 텃밭 매매
복층구조(테라스7") 도시가스곧유입 산밑아늑한집,시세대비저렴,전원생활 로강추,매7억7천 010-8062-6776

35M단층상가
재개발 시세이하 12억인수 기대수익,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앞 황금상권
유동인구, 대246㎡ 010-9355-5056

(주)대진부동산 이승열,서구566-6400)27170-2020-00017

★신축 올병원 건물
月9000 보10억 안고 매180억, 대1480㎡
건4941㎡,약국입점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대610㎡, 건1980㎡, 月1600만
매43억5천 보2억4천안고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보5억안고,매60억,대522㎡,건1500㎡
月1700 프랜차이즈 입점 053)566-4488

월세 많은 4층상가
몽땅13억月470出
대219㎡,도25×6M 053)556-3600

초역세권특급빌딩
당3900 대1009㎡,상권확실 총62억인수,공실無
보16억,月2800出 053)556-3600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수 성 구

최선부동산(주) 우병선,수성741-0070)27260-2017-00216

장원·아너스 가든1,2,3차 경남을지명문
범어청구하이츠, 효성백년가약궁 라온2차, 범어센트레빌, 빌리브범어 쉐르빌,아크로타워 053)741-0070

(주)경동부동산 한성구,수성1666-0577)가-16-3342

月9천出50억인수가
대4,270㎡, 건12,600㎡
통상가 (보15억,융자120억) 급매 1666-0577

현 커피숍 급매매
대지2,148㎡, 건480㎡, 당650만 10억인수가능, 임대가능, 보1억 月1,000만, 권리금無 1666-0577

★나대지 급매매
대지606㎡, 건265㎡, 9억5천
당520만 15m도로접 1666-0577

침산동 최요지 아파트 상가
급매, 1층50㎡, 2층330㎡,커피숍 및 프랜차이즈 최적지, 17억5천 융80%可, 5억인수가 1666-0577

남산동 나대지 급매
대330㎡, 건125㎡, 신축하기 좋은 부지, 재개발 지역투자, 13억7천 융80%가능 1666-0577

신천동 최요지 상가부지
대1,285㎡ 당3,300만, 대도로변접 인근대단지ⒶⓅⓉ단지 1666-0577

중구 대신동 최요지
상가부지, 급급매, 대793㎡, 4차선 대도로접, 당1500만, 조절가능(회사 사옥, 골프장, 커피숍등) 1666-0577

19면 계속

타오르진 않지만…매혹 넘어선 사랑의 원형



김중기의
필름통

헤어질 결심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그렇다. 재래시장에 널려 있는 재료로 미슐랭 별 다섯 개의 품위 있고 우아한 음식을 만들어 냈다. 클리셰를 답습하면서도 상투성을 부정한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묻는 대범함에 두 손 들었다. "그래, 대단하다."

'헤어질 결심'은 살인사건의 형사와 용의자인 아내라는 설정으로 다가온다. 영화의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는 '감'이 온다. 남편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내는 미모이고, 그녀는 사악한 팜므파탈이며 형사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허우적댄다는 '감'이다. 맞다. '헤어질 결심' 또한 그렇게 간다. 스릴러의 질감에 치명적 로맨스를 드레싱 쳐놓았다. 그러나 전혀 다른 지점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깎은 듯 절벽에서 등반하던 남자가 추락사한다. 젊은 아내 서래(탕웨이)는 슬퍼하지 않는다. "마침내"라는 말까지 내뱉는다. 기다렸다는 말인가. 서래는 당연히 용의 선상에 오른다. 형사 해준(박해일)은 그녀를 취조하면 할수록 또 다른 길을 걷는 자신을 보게 된다.

해준은 아내가 있는 젊은 형사다. 자부심도 있다. 그래서 서래는 "품위 있다"고 말한다. 견고한 그는 서래를 통해 무너진다. 모든 로맨스가 그렇듯 운명적이다. 취조실에서 같이 초밥을 먹고 책상을 치울 때는 마치 부부 같다. 서래는 강인한 여성이다. 중국에서 밀입국한 조선족이라 한국어가 서툴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소통한다. 공자의 '논어' 글귀를 중국어로 읊는다.

'헤어질 결심'은 모든 것이 명료하지 않다. 정훈희의 노래 '안개'가 영화 내내 흐른다.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를 하염없이 외로이 나는 간다'는 가사. 영화가 그렇다. 로맨스는 염탐하는 수준이고, 스릴러는 서스펜스가 모자란다. 모든 것이 아스라하다. 불면에 시달려 기억마저 명료하지 않다. 사랑이었을까. 애타게 부르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조차 건네지 못했다. 안개만이 자욱한 거리를 걷는 것 같다.

영화는 주인공의 섬세한 심리를 특유의 미장센으로 증폭시키며 관객의 내면에 파도를 일으킨다. 광곽으로 찍은 한 면은 늘 비워져 있다. 거기에는 거울이나 유리가 있어, 또 다른 이미지를 반영한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호하다.

언어도 명쾌하지 않다. 서래의 어눌한 한국어는 더욱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 그 흔한 "사랑해"라는 말도 없다. 타오르지도 않는다. 그 흔한 사랑의 도식을 부정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단정하지 않는다. 해준의 불면은 서래만이 고칠 수 있다. 망원경으로나마 그녀를 볼 때는 잠을 잘 수 있다. 차 안에서 수갑 찬 손으로 서래의 손을 만진 후 단잠을 자는 해준을 보면서 '사랑'이 아니라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서래는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 모두 남편이 죽는다. 두 번째는 잔인하게 피살된다. 모두 용의선상에 오르지만, 그녀는 무죄다. 죄와 벌 또한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버텨낸 시간들이다.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현대인'이다. 그래서 일상화된 악녀 캐릭터를 벗어버린다. 바다 깊숙이 비밀을 묻기 위해 모래를 파헤친다.

'헤어질 결심'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1959)의 여러 이미지를 오마주하고 있다. 음악도 히치콕

절벽서 등반하던 남성의 추락사
남편 살해 의심받는 미모의 아내
그녀를 취조하던 형사와의 사랑

판에 박힌 이야기 다르게 풀어가
모든 게 명료하지 않은 전개 속에
희생 전제된 지극한 연모 보여줘

영화에서 즐겨 쓰던 현악이 강조되고, 고소공포증에 시달리는 제임스 스튜어트처럼 불면에 시달리는 불완전한 주인공에 거센 파도 등 여러 이미지들이 히치콕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틀만 그럴 뿐 '헤어질 결심'은 훨씬 깊은 이야기를 던져준다. 사랑의 원형이다. '현기증'의 킴 노박이 전해 준 타인의 매혹을 넘어 희생이 전제된 지극한 연모이다. 사랑하는 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미결'이 되고자하는 필사적인 몸짓이다.

가장 달콤한 키스는 아직 해보지 못한 키스라고 했던가. '헤어질 결심'은 아직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지극한 사랑의 극지점을 선사한다. 특히 엔딩 장면의 비극미는 위세가 대단해 오로지 아름답다는 생각마저 가지게 한다. '붕괴'될 정도다.

탕 웨이와 박해일의 연기가 뛰어나다. 영화가 오로지 두 사람에 의해 진행되니 둘의 비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탕 웨이의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국적 낯섦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신비롭다. 특히 박해일의 연기가 도드라진다. 그동안 판에 박은 듯한 느낌을 섬세하며 카리스마 넘치게 보여준다.

'헤어질 결심'은 한국영화의 만듦새를 한 단계 올려준 박찬욱 감독의 수작영화다. 그래서 칸에서 감독상을 선사했겠지만 말이다. 138분.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평론가



새 영화

미친 능력



감독: 톰 고미칸
출연: 니콜라스 케이지, 페드로 파스칼

'더 록', '콘 에어', '페이스 오프' 등 90년대 최고의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신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현실과 허구를 곁들여 영화산업에 대한 풍자와 영화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잘나가던 슈퍼스타에서 이젠 빚쟁이 신세가 된 닉 케이지(니콜라스 케이지)에게 생일 파티 참석을 조건으로 기꺼이 백만 달러를 주겠다는 하비(페드로 파스칼)가 등장한다. 스타로서의 자존심과 어마어마한 제안 사이에서 갈등하던 닉 케이지는 결국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향한다. 초호화 환대를 받고 행복한 휴양을 보내던 그는 의문의 CIA로부터 납치되고, 하비가 악명 높은 수배범인 사실을 듣게 된다. CIA로부터 가족을 빌미로 위험한 미션을 강요받은 닉 케이지는 설상가상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휘말린다. 107분. 15세 이상 관람가.

컴온 컴온



감독: 마이크 밀스
출연: 호아킨 피닉스, 우디 노먼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출연한 힐링 로드 무비.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해 LA, 오클랜드, 뉴욕, 뉴올리언즈 등 여러 도시들을 찾아가는 흑백영화다. 주인공 조니(호아킨 피닉스)는 라디오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아이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살던 여동생 비브(가이 호프먼)의 부탁으로 9살 조카 제시를 돌보게 된다. 뜻하지 않게 밤낮을 함께 하게 돈 둘. 조시는 제시에게도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과거를 꺼내게 된다. 마이크 밀스 감독은 노년에 커밍아웃한 아버지 이야기인 '비기너스'(2010), 강인한 어머니와 누나들의 이야기 '우리의 20세기'(2016) 등을 연출한 미국 감독이다. 109분. 12세 이상 관람가.

리멤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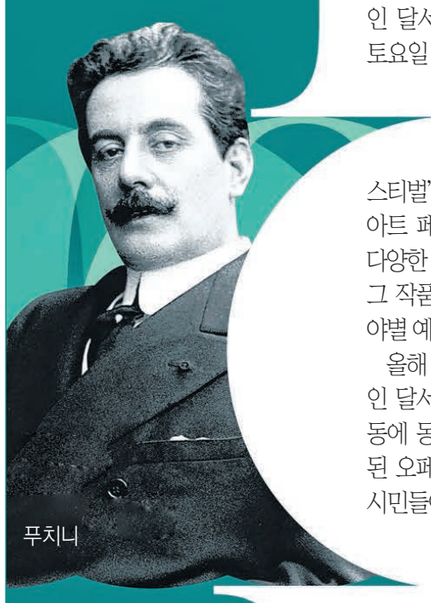
감독: 시미즈 에이지 한
출연: 새미 앤더슨, 재클린 팜퀴스트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평양에 살고 있는 9살 소년 요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다. 그날 밤 요한은 집에 들이닥친 관리에 의해 남은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끌려간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의 땅 북한 정치범 수용소다.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한 조각의 희망을 찾기 위한 소년 요한의 여정이 시작된다. 재일교포 4세 시미즈 에이지 한 감독은 탈북민이 쓴 책을 읽고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감독은 직접 탈북민을 만나 취재하며 생생한 증언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제44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초청작이다. 94분. 12세 이상 관람가.

낮선 오페라, 해설로 쏙쏙

3주동안 '렉처 오페라 인 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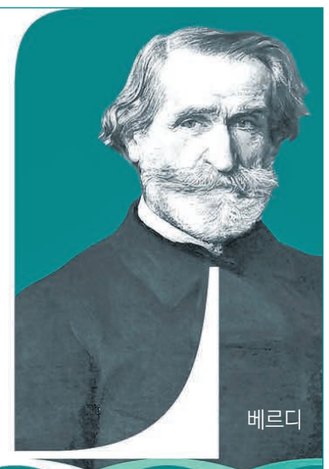
지역 민간 오페라단 참여
대중적인 곡에 해설 가미
시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
DSAC 축제 두 번째 무대



푸치니

라 트라비아타
오띠모 오페라
2022. 7. 2 (토) 17:00

토스카
CH7예술단
2022. 7. 9 (토) 17:00



베르디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대경오페라단
2022. 7. 16 (토) 17:00

해설과 함께 명작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축제 '렉처 오페라 인 달서'가 2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5시 대구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펼쳐진다.

(재)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의 'DSAC 아트 페스티벌' 올해 두 번째 무대다. DSAC 아트 페스티벌은 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그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한 분야별 예술 축제 프로젝트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렉처 오페라 인 달서'는 민간 오페라단의 창작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해설이 가미된 오페라 갈라 형식의 공연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기획이다.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오페라단 오띠모 오페라(예술감독 신현욱), CH7예술단(예술감독 이정아), 대경오페라단(단장 제상철)이 참여한다.

축제 첫 날인 2일엔 2019년 5월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띠모 오페라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원작으로 한 '라 트라비아타'는 어리석은 인습, 신분 격차, 은밀하게 이뤄지는 상류사회의 향락과 공허한 관계 속에서 잃어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축배의 노래',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등 익숙한 곡이 많아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게 달서아트센터 측 설명이다.

테너 신현욱(알프레도 역), 소프라노 배혜리(비올레타 역), 바리톤 손재명(제르몽 역) 등이 출연한다. 피아니스트 남자은은 음악감독을, 소프라노 조현진은 해설을 맡는다.

9일엔 2005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50여 차례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 CH7예술단이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토스카'를 공연한다.

'토스카'는 푸치니만의 서정적 선율과 화성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꼽힌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 시대 로마를 배경으로 고문과 살인, 자살, 배반 등 하룻밤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프라노 이정아(토스카 역), 테너 오영민(카바라도시 역), 바리톤 박정환(스카르피아 역), 테너 정진환(스폴레타 역) 등이 출연한다. 피아니스트 남자은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마지막 무대인 16일엔 2019년 창단한 대경오페라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선보인다.

로시니가 곡을 붙인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봉건주의의 악습과 관념을 풍자하고 인간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피가로를 통해 유쾌함과 통쾌함, 희열을 선사한다.

바리톤 제상철(피가로 역), 소프라노 이경진(로지나 역), 테너 홍지형(아마비바 백작 역), 바리톤 박상욱(바르톨로 역), 베이스 윤성우(바실리오 역)가 출연한다. 피아니스트 장윤영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이다. 예매는 티켓링크(ticketlink.co.kr)나 달서아트센터 홈페이지(dscf.or.kr)를 통해 하면 된다. 053-584-8719.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화랑의 혼 대왕문무'…호국·애민의 숭고함



DIMF 특별 뮤지컬로 무대 올라
민간 피해 막으려 조종간 사수
故 심정민 소령 추모 의미 담아

제16회 DIMF 특별공연으로 1일과 2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화랑의 혼 대왕문무'에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긴다.

'화랑의 혼 대왕문무' 제작사인 뮤지컬컴퍼니에이는 "1일 오후 7시 공연을 지난 1월 창공에서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 추모공연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심 소령의 어머니와 고인의 누나인 현정·은정 씨가 참석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신평 변호사, 고인의 모교인 능인고 교사와 학부모, 능인중고 총동창회 측에서도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공연에 앞서 대형태극기를 무대에 영상으로 띄우고 1분간 추모묵념을 올린다. '화랑의 혼 대왕문무'는 한국적인 노래와 춤 등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바탕 위에 서양의 공연 양식을 결합한 한국형 뮤지컬이다.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의 충의와 애민정신을 담아냈다.

김재철 뮤지컬컴퍼니에이 대표는 "고인이 생전 보여준 모습은 '동해의 용이 되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문무대왕의 호국정신과 다르지 않다"며 "심 소령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창공의 별 하늘에 지다)을 제작해 고인의 호국정신과 애민정신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뮤지컬컴퍼니에이 측은 내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서울과 대구, 청주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심 소령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지난 1월 11일 임무수행을 위해 F-5E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 순직했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다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김도훈 기자

매일춘추

카카오페이



김아가다

친정 고모와 숙모님을 모시고 남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사촌동생들에게 효도관광 가는데 협찬하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다.5분도 되지 않았는데 카카오페이가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들렸다.

생전처음 경험하는 카카오페이다. 폰뱅킹도 꺼리는 나에게는 엄청나게 생소한 문명이다. 카톡으로 문자만 주고받다가 덜컥 들어온 카카오페이. 보이스피싱이 무서워서 할 줄 아는 것만 사용하는 수준인데 어쩌자고 동생들은 나를 곤욕스럽게 하는지. 폰맹인 나를 애먹이려고 작정했는가 싶어서 뿔이 났다. 이왕 돈이 들어왔으니 접수하기로 마음먹고 돋보기까지 동원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다.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보통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 인터넷은 정보 생산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기계에 심어둔 지식이 전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려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지식을 배워야한다. 삶의 모든 것이 '클릭'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산다. 그렇지만 난관에 부딪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동의서와 약관에 클릭하고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모두 등록했으나 자꾸 에러가 났다. 몇 번이나 거듭한 끝에 겨우 '카카오페이 받기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긴장한 탓인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서 온몸이 땀에 젖었다.

돈이 카카오페이에 들어 있단다. 카카오페이 통장에 있는 오십 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밤 깊은 시간이라 물어볼 곳이 없다. 아파트 생활은 바로 옆집과도 문을 닫고 사는데다 금융에 관련된 일인데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나?

궁하면 통한다는 시답잖은 원칙을 나름대로 고집하고 살았다. 게으르기도 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만 받아들이고 산다. 무슨 일이나 대충대충, 삶은 단순해야 한다는 편견으로 살아온 오만이다. 스마트폰의 아주 기본적인 통화, 문자, 카톡, 카메라까지만 알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다.

비대면 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개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머리가 뜨끈뜨끈하도록 씨름한 끝에 카카오페이 계좌를 개설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사용자로서 프로그램을 잘 응용하여 앨빈 토플러가 정의한 제3의 물결 정보사회에 편승해야 하리라.

시니어문학상 대상 수상자

www.imaeil.com

2022 전국 재난안전 수기공모

총상금 2,100만원

시상내역
- 일반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 1명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 2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작 10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 입선 20명 상패 및 상금 20만원
- 청소년부문 대상(교육부장관상) 1명 상패 및 장학금 100만원
- 우수상(대구·경북교육감상) 2명 상패 및 장학금 50만원
- 가작 10명 상패 및 장학금 20만원
- 입선 20명 상패 및 장학금 5만원
- 지도교사상 4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공모내용
- 재난·재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하는 노력 등으로 정리
- 생활 속 화재, 안전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경험 또는 방법
- 지진,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
- 산업재해 예방 및 실천 사례
- 재난·재해 피해지역의 자원봉사 이야기
- 재난·재해·질병에 관한 주변이야기나 TV, 영화 등을 보고 느낀 점
- 재난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례 등

출품자격
- 일반부문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만 19세 이상)
- 청소년부문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누구나

출품요령
- 작품분량 : 1인당 1작품
  - 일반부문 : 200자 원고지 20매 또는 A4 3매(12pt 기준) 이상
  - 청소년부문 : 200자 원고지 14매 또는 A4 2매(12pt 기준) 이상
- 작품표지 : 1) 제목 2) 이름 3) 생년월일 4) 전화번호(휴대전화, 일반전화) 5) 소속(직업/학교·학년·반) 6) 주소 기재
  ※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위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작품제출 및 문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택1, 중복접수 불가)
  - 이메일 : maeilsaup119@naver.com
  - 우편 : 41933,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4층 사업부
- 문의 : 053)251-1413(전국재난안전 수기공모 담당자)

접수마감 : 2022년 7월 28일(목) 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발표 : 2022년 8월 16일(화), 매일신문 지면 및 홈페이지

시상식 : 2022년 9월 2일(금) / 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은 반드시 매일신문 홈페이지(imaeil.com)에서 확인 후 출품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매일신문 후원 : 교육부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협찬 : 대구한의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또다른 K-명작인가 그저 그런 카피작인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하회탈 쓴 독특함
남북 통일 미래관
원작과 다른 매력
"신선하다" 호평도

기본 설정 같지만
과한 한국적 변주
리메이크 특성상
내용 호불호 갈려

정덕현의
엔터 인사이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성취와 한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가 공개됐다. 반응은 양갈래로 나뉜다. 한국적인 색채로 재해석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저 카피에 머물렀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과연 이 리메이크가 가진 성취와 한계는 뭘까.

◆'종이의 집' 한국판, 무엇이 다를까

지난 6월 24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이하 종이의 집)이 공개됐다. 26일 기준 글로벌 OTT 순위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서 '종이의 집'은 TV쇼 부문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이틀 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3'가 전체 1위이고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로완 앳킨슨 주연의 코미디 '인간 vs 벌'이 2위, 그리고 '종이의 집' 한국판이 3위를 차지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후 곧바로 나온 성적으로 보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종이의 집' 한국판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워낙 유명한 원작을 리메이크한 것이라 상위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리메이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반대로 살바도르 달리 가면 대신 하회탈을 쓰고, '남북통일' 상황이라는 새로운 근미래의 세계관을 가져온 점이 신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양극단의 평가를 만들어낸 걸까.

먼저 원작의 묘미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 원작으로 시즌5까지 제작된 '종이의 집'은 교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도쿄, 베를린, 모스크바 등등의 가명으로 불리는 범죄자들이 스페인 조폐국을 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에는 그저 조폐국 돈을 터는 강도처럼 보였지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시간을 끄는 이들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다. 즉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돈을 찍어내서 다른 루트로의 탈출을 계획하고 있던 것. 조폐국 바깥에서 이 모든 범죄를 진두지휘하는 교수와, 이들을 진압하고 협상하려는 경감, 그리고 인질로 잡힌 이들이 벌이는 치열한 심리전이 그 핵심적인 재미다.

'종이의 집' 한국판도 이런 기본 설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가명으로 만들어낸 캐릭터 이름까지도 동일하고,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한 교수(유지태)와 선우진(김윤진) 경감 사이에 만들어지는 미묘한 관계도 거의 같다. 조폐국 안에서 인질범과 인질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부제로 적혀 있는 '공동경제구역'이라는 단어에서 찾아진다. 남북한의 분단이 허물어지고 통일을 앞두고 먼저 공동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 남북한 공통의 새 화폐를 찍어낸다는 게 그 주요 설정이다.

단 하나의 설정을 바꿔 놓은 것이지만, 이건 왜 이 넷플릭스의 히트작 리메이크가 굳이 '한국판'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준다. 시작부터 북한출신 도쿄(전종서)가 북조선 아미로 BTS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하는 장면부터 예사롭지 않다. 도쿄는 그 곳에서 진짜 군사 훈련을 받은 아미였다는 진술로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한다. 군사 훈련으로 남다른 전투력을 가진 북한 출신 인물들이 남한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상황. '종이의 집' 한국판이 원작과는 다른 또 다른 내분과 갈등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물리적 통일과 화학적 통일 사이

한반도가 통일을 앞두고 있다는 이 설정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통일을 의미한다. 진정한 통일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는 이런 대안을 내놓는다. "우리는 왜 분단국가에 살고 있을까? 왜 70년 넘게 통일을 못하고 있는 걸까? 정치, 문화, 경제 문제가 복잡하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고안된 기존의 나선형 모델(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 내 주장은 이거야. 남과 북 모두가 하나의 꿈을 꾼다면 통일은 순식간에 이뤄진다. 그럼 어떤 꿈을 꿔야할까? 한반도의 평화? 문화적 공감대? 욕망이야 욕망. 남과 북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욕망."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에 대한 교수의 대안은 과연 효력을 발휘할까.

통일을 향해 나가는 물리적인 결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분단 상황은 조폐국을 터는 교수 일당들이나 또 그 일당과 상대하는 경찰들, 그리고 심지어 조폐국 안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그들을 가르는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라는 다른 삶의 배경들이 같은 집단 안에서도 갈등을 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 일당들 중 조폐국 내부에서 리더를 맡게 된 베를린(박해수)은 북한 수용소에서 수십 년 수감생활을 했던 인물로 그의 이런 경험치는 인질 관리 방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조폐국을 터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교수는 그 누구 한 사람 다치는 일이 없고 무엇보다 인질들도 자신들의 협력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베를린은 생각이 다르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며, 현실에서는 공포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살아온 배경이 달라 부딪치고 갈등하는 상황들은 경찰 내부에서 인질들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는 선우진 경감과 조기 진압을 외치는 북한 특수요원 출신 차무혁(김성오) 사이에도 등장한다. 또 인질로 잡힌 남한 출신 조폐국 국장(박명훈)이 제 살길만 찾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자, 다른 인질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반발하는 북한 출신 부국장과의 갈등이 벌어진다. 이처럼 '종이의 집'은 그 외피는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왔지만, 그 안에 남북한이라는 아직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경계지대를 넣어 색다른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낸다.

◆공적 편 가르기와 사적 친밀관계 사이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결합은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으로 바뀔 수 있을까. '종이의 집' 한국판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변화가 사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걸 그려내고 있는 점이다. 교수와 선우진 경감은 공적인(?) 위치에서 조폐국 털이범과 경찰이고, 그래서 대결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두 사람은 차츰 가까워진다. 물론 그건 교수가 선우진 경감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지만, 차츰 가까워지면서 교수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선우진 경감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일은 조폐국 안에서 털이범과 인질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공포에 의한 강한 통제를 부르짖는 베를린 같은 인물도 있지만 인간적인 정이 많은 덴버(김지훈) 같은 인물도 있다. 덴버와 조폐국 직원인 미선(이주빈)의 관계는 겉으로는 인질범과 인질의 관계지만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며 가까워지는 관계로 변한다.

그래서 '종이의 집' 한국판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새로운 설정을 가져와, 그걸 통해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질문한다. 즉, 통일이 어려운 건 갈등까지 포함하는 인간적인 관계의 경험들이 먼저 이뤄지지 않고 그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안건으로서만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용되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라는 국지적인 상황의 이야기는 공적인 편 가르기가 글로벌한 일상이 되어버린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으로 변주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르는 전쟁이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대결들 속에서 그저 선언에 머무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인간적인 교류'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워낙 유명한 원작과 비교해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는 리메이크다. 누군가는 원작을 그저 카피했다고 할 정도로 유사성에 집중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과하게 한국적인 이야기로 변주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바로 그것이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만족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대중문화평론가

법인부동산

동 구

동행부동산(주) 허중욱,동구744-6767/27140-2022-00073

※가창 정대 주말농장 전 그린벨트, 509㎡(154) 계곡물 졸졸 자연경관
몽땅5500만 053)751-2800①

카센타 최요지! 동구 8차선 접 100″, 당1200만 053)744-6767②

동구 신서동(주차)빌딩 건2579㎡, 月400만 (공기업 1년단위 계약함)
매7억 053)753-3600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주) 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전화주세요 588-0097

★성서신축공장매매 대2,446㎡, 건1,719㎡, 고9M 당625만 동력30KW
010-9973-009

★성서 공장 매매 대4958㎡,건3398㎡,고6M,당450만 대1650㎡,건1150㎡,고6M,당500만
010-9973-0097

★하빈 토지 매매 자연녹지지역, 1282㎡, 도로접 개발행위가능, 평당160만
010-9973-0097

★성서 공장 매매 대4,793㎡,건3,636㎡,크10t 3대 고9M,동력300kw, 당510만
010-9973-0097

★창녕 고암면★ 계획관리지역, 토지매매, 13,474㎡ 평탄작업, 당35만,추천용도:제조,물류 영농법인, 폐차장 010-9973-0097

★성서 공장 부지 매매 대2,446㎡, 당455만 신축도 가능
대출90% 010-9973-0097

일반부동산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月 1억2천5백만출, 200억(보10억 대출 90억 안고) 달구벌대로 초지하철역세권 병원/명품브랜드 프랜차이즈 최고상권,교통량, 대규모APT 상권,초특급 빌딩 010-3701-0772

月5500만出 총180억 (대출80%可) 수성구 통상가,고급Ⓐ밀집지역,상업지역,근린상업시설,프랜차이즈핵심요지,지하철,광고효과 010-3701-0772

月1280만出 총48억 (대출80%可) 수성구 유명커피점, 대지340㎡ 건물6층, 대단지APT 유동인구 상권좋고 010-3701-0772

▣리더스트럼프(노유진,수성)27260-2017-00196
月6300出, 157억, 대1377㎡ 건9100㎡,수성구대도로최고위치, 메이커체인점, 커피카페 요양병원, 주차양호, 보2억5천+융 130억안고,극비매매 053)768-9000

月2220出, 51억, 대753.7㎡, 건3593㎡, 도로35 x 15 Ⓐ대단지상권, 휴대폰, 한의원, 학원, 카페, 보호센타, 약국 병원할분, 1층, 5층공실有, 보3억3천 +융31억안고 극비매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6-3703
매110억 보3.5억 융60억
月3,200만出 달구벌대로 코너 대지넓음 010-3509-4725

매11억5천 보5천,月300出 1층상가,범어동
최요지 지하철 연계 인근 대형은행입점
사실상백화점상권 010-3509-4725

매20억 보7,500만, 융12억 7.25억인수
月500만出 대단지 코너 병원건물 010-3509-4725

▣황금랜드(서태영,수성)27260-2016-00020
月550出 남구대단지Ⓐ밀집 지역코너, 병원입점 안정된 수익, 인근대단지Ⓐ 재건축 임박, 향후투자수익확실 몽땅20억 010-8632-3100

호텔매매 35억 인수(융有) 대894㎡(271) 건1669.8㎡(505.1) R35개 시설최상급, 5층, 매일가득 예약필수 바닷가 전경환상적 010-5671-5585

동남부동산(沈宗燮,수성761-7501)가-16-1501

대로접 코너 빌딩 대576㎡, 건3,890㎡, 상업지역 몽땅80억 보10억, 月2,700 010-2714-1155

수성구 역세권 4층 상가 대162㎡, 건540㎡, 역세권 보1억, 月460出, 공실無 몽땅15억5천 010-2714-1155

月1500 병원약국,역출구,대로접 대445㎡,대단지앞,매46억
月700 수성구,ⒶⓅⓉ대단지입구 유명체인점, 공실無, E/V
대85″,매23.5억 010-6630-8648

月550 대로코너,대단지Ⓐ앞상가 학원건물, 공실無, 매23억
月400 수성구,대단지ⒶⓅⓉ앞 학원, 통상가, 매17.5억
010-6630-8648

月380出수성구상동 신축 상가주택, 종상향지역 대234㎡, 인수3억3천 053)762-6688

月350出, 수성구 상가주택 신축, 대185㎡, 신축역세권, 2차선접 매14억5천 인수2억2천 053)762-6688

月955出남구통상가 6차선접, 대구교대역세권, 대327㎡ 매매35억 자부담18억5천만 053)762-6688

황금부경부동산(정지혜,수성)27260-2021-00122

스타벅스+병원 대466㎡, 건903㎡, 코너, 月905만 20억 최고의 상권
053)762-6100

버거킹 서브웨이 月900 大도로,대820㎡,건354㎡ 장기계약, 상권특A
14억인수 010-5683-6100

달 성 군

▣다산들공인(박영수,다산)47830-2020-00005
공장매매 대366, 건120 당125만 /다산땅 182, 몽땅9500만
땅 계획관리, 답1850, 대형차입 급매, 당16만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엄진섭,달성군)가18-321
달성1,2차/국가산단/테폴 공장매매 / 임대 공장전문
경력20년 010-4504-6532

▣현대공인(김영근,가창)27710-2020-00069
가창우록리자연녹지 급매 200, 당125만, 4M포장 도로접, 건축허가有
경관A급 010-6415-0051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5-2290
최신축 초고수익무인카호텔매매 대6,416㎡,건3,491㎡ 최신력셔리인테리어, 특실력셔리명품 1실1주차, 29실, 매출8천이상, 인수12억 (융有)순수익률40% 010-7437-5535

달 서 구

▣LG부동산(이지영,달서)27290-2020-00187
※원룸 초급매 대지210㎡, 도6 x 6코너, 룸7칸 주인세대 1칸, 달서구 역세권
몽땅5억9천 053)643-8988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경북대정문상가주택 대219㎡, 月300만
몽땅13억 주인살고 053)942-4080

▣스타랜드공인(김재홍,동구)27140-2020-00009
★동구,창고,물류등 주거지역, 그린벨트 2700㎡(817), 30억(당367만)
010-5298-3557

▣금상부동산(홍세호,동구)27140-2018-00149
두산오거리 토지 매매 스프린골프 성업중 3,488㎡(1,055)
3.3㎡당3200만원 053)984-3450

경 산 시

물류 창고 안심혁신도시 대지2000″
공장 창고, 대지500″, 건물120″ 매매, 당140만, 신축
010-9468-5022/ 010-3502-0322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다산 준주거 공장 급매,대674,건324,고12.5M(10x8도 접2002년준공,입주6개월여유,물류 창고추천,금액협의 010-2878-8945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동고령 IC 2분거리 신축공장 500~ 면적 다양 추레라진입, 도로
8M, 대출80%이상 054)956-9080

주물허가공장 대1000 건400
고6.5m,전기700kw,호이스트2.8t
매3억인수 도로10m 054)956-9080

합 천 군

전원주택 겸 펜션 매매 해인사 I·C
10분 거리, 대208, 건80, 이층건물 방4,욕실4,주방2,거실2,수영장,대행하우스, 매5억5천 010-7379-9900

영 양 군

야영지·식당·농원 수비면 신원리24번지 약2000 야영지및식당 겸 농원
010-3507-6366,010-7104-9405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문화재청 허가
● 구궁 · 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덕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독도 찬가" 작사 손기복, 동동동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금랑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박병호 기록’ 희생양? 3일 연속 홈런 내준 삼성

삼성라이온즈가 올시즌 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kt위즈 박병호의 홈런 기록 행진의 희생양이 됐다. 박병호는 뜨거운 타격감을 앞세워 삼성의 선발진을 상대로 모두 홈런을 뽑아냈다.

30일 대구 kt전에서 박병호는 삼성 에이스 외인투수 뷰캐넌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쳐내며 새기록을 써냈다.

삼성과 주중 3연전을 포함해 5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박병호는 시즌 26호를 기록, 올시즌 홈런 부문 단독 1위를 질주했다.

이날 kt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박병호는 1회 첫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어 kt가 2대0으로 앞선 3회 무사 주자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나선 박병호는 뷰캐넌이 던진 구속 141㎞짜리 컷패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왼쪽 펜스를 훌쩍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비거리가 132m나 된 타구는 외야 스탠드를 넘어 장외로 떨어지는 초대형 홈런이었다.

한번 달궈진 방망이는 식을줄 몰랐다. kt가 5대1로 앞선 4회에 다시 타석에 오른 박병호는 이번엔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때려내며 연타석

주중 3연전 연속 홈런 박병호
30일 3·4회 연타석 홈런 쳐내
리그 홈런 부문 단독 1위 질주

삼성, 10일 ‘원팀데이’ 이벤트

멀티 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뷰캐넌은 4이닝 8피안타(2피홈런) 6탈삼진 6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앞선 삼성과 경기에서도 박병호는 삼성의 선발진을 상대로 모두 홈런을 쳐냈다. 지난 28일 경기에서는 0대0으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3회, 백정현의 131㎞의 변화구를 때려내 선제 솔로홈런을 만들었고, 29일 경기에서는 원태인을 상대로도 솔로포를 쳐냈다.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25호와 26호 홈런을 잇달아 기록한 박병호는 홈런 부문 2위인 김현수(LG트윈스)와 이정후(키움히어로즈·이상 14홈런)를 12개 차이로 멀찌감치 따돌렸다.

특히 박병호는 개인 통산 353홈런을 기록, 양준혁(351개·은퇴)을 제치고 홈런 부문 단독 4위가 됐다.

KBO리그 개인 통산 홈런 순위는 이승엽(은퇴)이 467개로 1위이고 최정(413개·SSG랜더스), 이대호(360개·롯데자이언츠)가 뒤를 쫓고 있다.

한편, 삼성은 10일 SSG와의 전반기 홈 마지막 경기에서 ‘혼연일체 원팀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팍과 경산볼파크의 모든 구성원이 ‘ONE TEAM ONE BODY’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할 계획이다. 일반 팬 대상으로 시구 및 시타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삼성 응원 메시지가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선수단 투표 후 2명을 선정해 시구 및 시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혼연일체 응원타월 1만 장을 1, 3루 및 외야게이트에서 선착순 증정한다. 상반기 명장면이 담긴 리유저블컵 5종, 원팀 티셔츠, 포토카드북을 추첨 및 SNS 이벤트를 통해 증정할 계획이다. 김우정 기자



자연서 겨루는 세계수영선수권 29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19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스위밍 남자 10km에 참여한 선수들이 일제히 물로 뛰어들고 있다. 오픈워터스위밍은 실내가 아닌 바다, 호수, 강 같은 실외에서 최단 5㎞부터 최장 25㎞까지 장거리를 헤엄쳐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 연합뉴스

우상혁 “높이뛰기 실내·외 석권, 이름 남길 것”

15일 美서 열리는 실외선수권 출전
우승 땐 세계육상 ‘두번째 레전드’



불모지 한국 육상에서 탄생한 ‘세계 최정상급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사진)이 ‘전설’ 하비에르 소토마요르(55·쿠바)만이 달성한 ‘남자 높이뛰기 같은 해 실내·실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석권’에 도전한다.

올해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우승한 우상혁은 오는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2022 세계(실외)육상선수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상혁도 우승을 갈망한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공동 1위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와 함께 ‘남자 높이뛰기 빅3’로 분류된 우상혁은 2022년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2m36·2월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 2m35·3월 20일 세계실내육상선수권 2m34·5월 14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m33)하며 ‘현재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상혁은 30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소토마요르는 높이뛰기의 전설적인 선수다. 소토마요르와 같이 언급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며 “세계실내선수권에서 우승했으니, 유진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록을 갈망한다. 역사를 쓰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다. 죽을 만큼 노력해야 최초 기록에 닿을 수 있다”며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열심히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경기에서 보여주려고 한다”고 금빛 도약을 다짐하기도 했다.

우상혁이 유진에서도 가장 높이 날아오르면, 세계육상에서도 드문 진기록이 탄생한다.

남자 높이뛰기에서 같은 해에 실내와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동시에 차지한 선수는 소토마요르뿐이다. 연합뉴스

축구협회, 2023년 아시안컵 유치의향서 제출

대한축구협회가 63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를 위해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축구협회는 30일 “오늘 오후 2시 2023년 아시안컵 유치의향서를 AFC에 공식 제출해 접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AFC는 아시안컵 유치 신청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했으나 축구협회는 일찌감치 접수를 마쳤다. 이번 아시안컵은 당초 중국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했다.

새로운 개최국은 10월 열리는 AFC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이 유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SK 김선형 ‘8억원’ KBL 연봉킹 등극

이승현·허웅·전성현 공동 2위

서울 SK의 창단 첫 통합우승 주역인 김선형이 2022-2023시즌 프로농구 보수 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

KBL은 30일 2022-2023시즌 프로농구 국내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선형이 8억원(연봉 5억6천만원, 인센티브 2억4천만원)으로 보수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2021-2022시즌 SK의 정규리그 및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고 나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선형은 계약 기간 3년에 첫해 보수 총액 8억원의 조건으로 SK와 사인했다.

김선형의 지난 시즌 보수 5억2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이 뛰었다.

전주 KCC 유니폼을 입은 이승현과 허웅, 데이원 전성현이 보수총액 7억5천만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안양 KGC인삼공사에서 총 보수 2억8천만원을 받았던 전성현의 경우 새 시즌 연봉은 6억원이지만 인센티브가 1억5천만원이어서 총액은 김선형에게 밀렸다.

2022-2023시즌 보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200%(4천만원 → 1억2천만원) 오른 금액으로 창원 LG와 FA 계약을 한 한상혁이다. 수원 kt와 169%(6천700만원 → 1억8천만원) 인상된 금액에 FA 계약한 이현석이 그 뒤를 이었다.



프로농구 서울 SK 김선형. KBL 제공

지난 시즌부터 도입된 소프트캡과 관련해서는 SK와 KCC가 샐러리캡(26억원)을 초과했다.

SK와 KCC는 샐러리캡을 초과한 금액의 30%인 7천798만7천400원, 6천750만원을 각각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납부한다.

한편 울산 현대모비스 김영현은 소속 구단과 합의에 실패해 보수 조정을 신청했다. 김우정 기자

KBO 출범 40주년 레전드 4人은 누구

16일 올스타전서 발표·팬사인회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4명의 이름이 KBO 올스타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허구연 신임 총재를 선임한 KBO는 ‘팬 퍼스트’를 내세우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올스타전에서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해 팬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올스타전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KBO가 30일 공개한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팬들과 전문가 선정위원의 투표로 뽑힌 ‘레전드 40인’ 중 1~4위 선수의 이름을 올스타전 당일인 16일에 발표된다. 나머지 36명의 선수도 매주 4명씩 9주 동안 차례대로 공개된다.

올스타전 본게임이 열리는 16일은 팬사인회로 문을 연다.

2019년 처음 선보인 10개 구단 선수와 팬이 함께 하는 팀 릴레이도 3년 만에 팬들을 찾아온다.

드림 올스타(kt, 두산, 삼성, SSG, 롯데)와 나눔 올스타(LG, 키움, NC, KIA, 한화)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올스타전은 당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올 시즌 은퇴를 선언한 롯데 이대호의 은퇴 투어도 올스타전에서 스타트를 끊는다. KBO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이대호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증정하고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올스타 전야제로 계획된 15일 ‘올스타 프라이데이’에는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 레이스가 열린다.

퓨처스 올스타전이 끝난 뒤에는 KBO 올스타 50명 전원이 그라운드에 나서며, 이 중 8명의 거포가 출전하는 ‘컴투스 프로야구 홈런레이스’가 이어진다.

잠실구장 외부 제2주차장 구역에 ‘팬 페스트존’을 마련해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풍성한 선물을 제공한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MLB 김하성 샌디에이고 다저스와 ‘서부 1위’ 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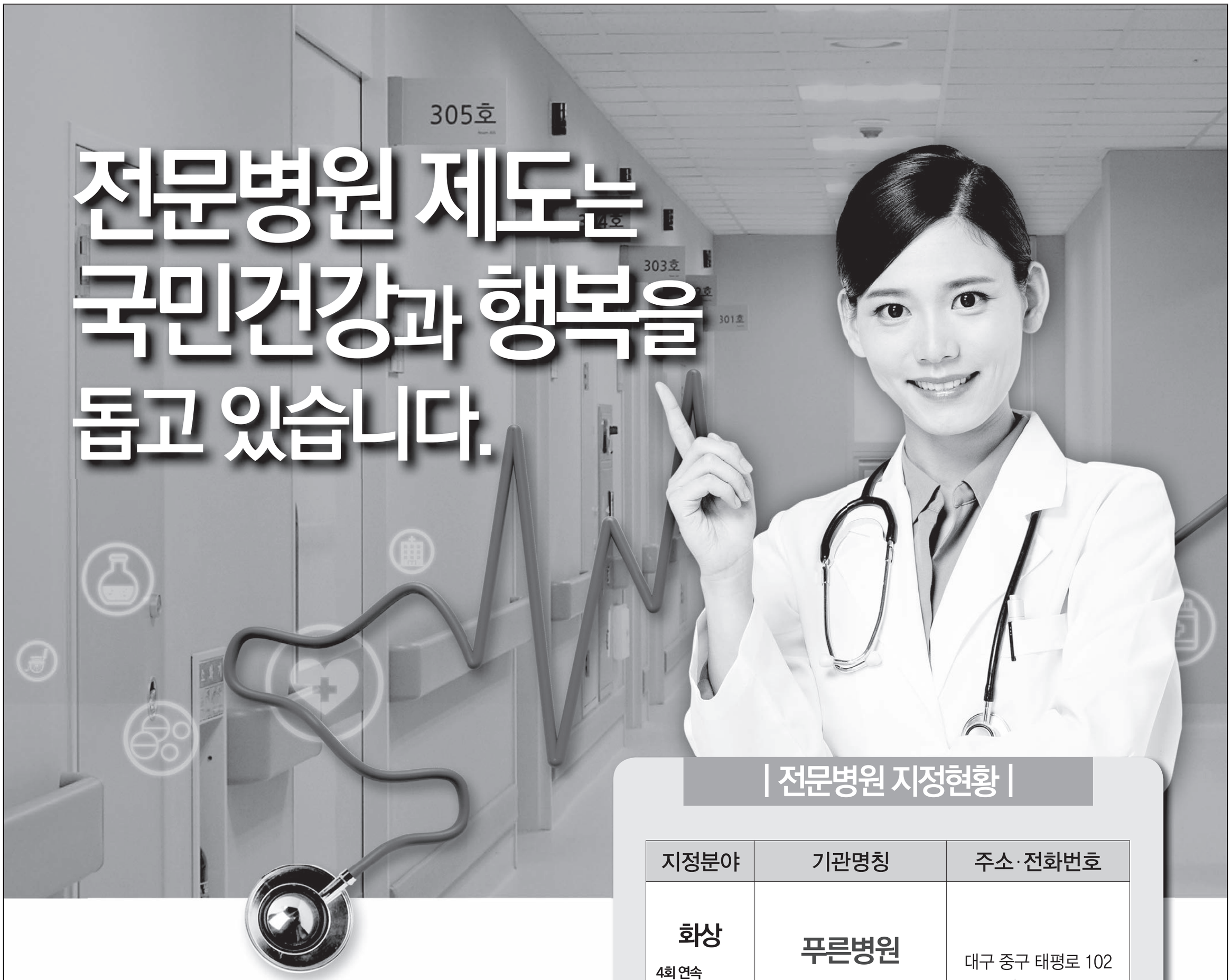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를 놓고 김하성이 맹활약 중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가 전반기 마지막 혈투를 벌인다.

서부지구 1위 다저스는 시즌 초반 강력한 위세를 떨쳤지만 2위 샌디에이고에게 1경기차(30일 기준) 추격을 당하고 있다. 두 팀은 1일 오전 11시 10분 1차전을 시작으로 4연전을 벌인다. 샌디에이고는 1차전 선발 투수로 조 머스그로브가, 다저스는 한국계 미치 화이트가 등판한다.

다저스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현재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2위(0.616)이지만 최근 워커 뷸러가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갈 길 바쁜 다저스는 서부지구 최하위 콜로라도 로키스에게 덜미를 잡혔다. 1차전 영봉패에 이어 29일 선발 투수 클레이튼커쇼(5승 2패)가 무너지면서 연패에 빠졌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활약으로 3연패에 탈출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김하성은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볼넷 2개를 고르며 3출루를 기록, 2경기 연속 멀티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득점도 하나 더했다. 전날 애리조나전에서도 김하성은 4타수 2안타로 멀티히트 경기를 기록하기도 했다.

샌디에이고는 4대0으로 승리하면서 3연패를 벗어났다. 이런 기세를 살려 다저스와 4연전에서 샌디에이고는 서부지구 1위 자리를 노린다. 김우정 기자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건강과 행복을 돕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 체계화된 진료시스템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기간 : 2021. 01. 01. - 2023. 12. 31.

제4기 1차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전국 101개의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문병원 지정현황 |

지정분야	기관명칭	주소·전화번호
화상 4회 연속 대구·경북 화상전문병원 지정	**푸른병원** 화상외과, 내과, 정형외과, 유방·갑상선외과, 마취과	대구 중구 태평로 102 ☎053)471-2800
뇌혈관 질환 대구·경북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굿모닝병원**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대구 남구 성당로 224 (대명동) ☎053)620-9100
척추 보건복지부 척추전문병원 4회 연속 지정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 053)212-3000
척추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참조은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4 ☎ 053)630-8000

권영진 시장 "8년간 시정 시민 덕분…퇴임 후 빚 갚겠다"

33·34대 대구시장 이임식

통합신공항·취수원 이전 해답 찾아

"코로나 극복은 함께 이뤄낸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별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권영진 33·34대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이임식을 끝으로 8년간의 시정 행보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은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김범일 전 대구시장, 김용판·김상훈·윤재옥 국회의원,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신동학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대표이사, 동화사 의현 큰스님, 능종 주지스님,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및 대구시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 시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8년간 대구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진심이 왜곡돼 속상할 때도, 아쉬운 점도, 슬픈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권 시장은 "2014년 취임 당시 씨앗을 뿌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한국뇌연구원 유치 등 김범일 전 시장이 뿌려 놓은 씨앗을 열매로 거둘 때도 있었다"며 "인생은 계승하고 창조하며 진화한다는 배움을 얻고 떠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신산업 육성 ▷도시 불균형 극복 ▷시민들과의 소통·협치 등을 지난 8년 동안의 시정 성과로 언급하며 "통합신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수원 다변화 해답을 찾았다. 또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도 시민들과 함께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시장은 "대구 시민들과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드라이브 스루 진단 검사, 생활치료센터 진료 체계, 확진자 전수검사 등 K방역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모두가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저를 시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며 "퇴임 뒤 대구 시민들에게 진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범일 전 대구시장은 환송사에서 "지도자의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 시장은 항상 본인의 공을 전임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대구를 위해 고민한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존경한다"고 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지난달 2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로타리클럽 창립 84주년 기념식 및 신구 임원 이취임식이 열렸다. 대구로타리클럽 제공

84주년 대구로타리클럽 "올해 더 많은 대민 접촉 봉사"

윤종석 영남프린텍 대표 회장 취임

국내외 4개 기관에 100만원씩 성금

대구 최초의 로타리클럽인 대구로타리클럽이 창립 84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신구 임원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윤종석 ㈜영남프린텍 대표가 2022~2023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로타리클럽은 봉사클럽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인제요양원과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우간다 베데스다 선교병원 등 4개 기관에 각 1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아프리카 우간다 베데스다 병원의 병원장은 영상으로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취임한 윤종석 회장은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올해부터 보다 많은 대민 접촉 봉사활동에 나서겠다"며 "1천200만원 이상의 장학금과 1천만원 이상의 성금을 전달하는 기부활동은 물론 홀몸어르신 도시락 봉사, 불우이웃 연탄 돌리기 등 회원이 직접 몸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로타리클럽은 로타리재단에 8억8천만원,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에 1억6천500만원 등을 기부했다.

대구로타리클럽은 1938년 창립 회원 28명으로 시작해 1940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해체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난민 수용, 고아원 등 전후 복구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재건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금오공대-일진전자산업 협약

인재양성 기금 2천만원 기탁

금오공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일진전자산업은 지난달 30일 사업·연구과제 공동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 김영달 일진전자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산·학·연·관 협력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의 공동 참여, 표준형 현장실습 및 직무연수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일진전자산업은 금오공대에 인재양성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1990년 설립된 일진전자산업은 특수목적용 케이블 조립체 및 와이어링 하네스의 설계 생산, 자동검사 시스템 관련 분야에 주력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NH농협은행 대구금융센터 'NH All 100' 현판식

고객 자산관리 특화 거점 점포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본부장 손원영)는 지난달 29일 2022년 자산관리 특화 점포로 선정된 대구중앙금융센터(센터장 정일경)에서 WM 특화 점포인 'NH All 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NH All 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로서 일반 영업점보다 전문적인 부동산 및 세무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행과 달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농협은행의 고객층을 위해 전국을 무대로 하는 '대중적 자산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자체 '금융 MBA WM과정' 및 '자산관리 전문역 양성과정' 등 종합자산관리 분야 최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컨설팅 실무 역량을 겸비한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 지역별 종합자산관리 분야 거점 점포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49곳인 WM 특화 점포를 2025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운영할 중장기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손원영 본부장은 "WM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현재 전행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이라며 "진정성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화성개발이 최근 국가유공자 주거 여건 개선사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왼쪽 두 번째가 화성개발 박종수 상무. 화성개발 제공

화성개발,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공로 총리 표창

월 1회 이상 노후주택 보수 지원

대구 건설사인 ㈜화성개발이 최근 국가유공자 주거 여건 개선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가유공자 주거 여건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무상 지원, 주택임차자금 무상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 화성개발은 매월 1회 이상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는 데 더해 급식, 생필품 전달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화성개발은 대구는 물론 수도권 일원에도 주택을 공급 중인 건설사.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AA,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AA를 받은 기업이다. 화성개발은 7월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52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수산공원 내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로 대구에서 최초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다.

박종수 화성개발 상무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노후주택 환경을 개선해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더 크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제1회 시니어모델 수상자들 매일신문 방문 시니어매일과 대백프라자가 함께한 '제1회 시니어모델 페스티벌'의 으뜸상 수상자인 박미진, 버금상 강진영·김정웅, 딸림상 박철희·차은희·이상윤 씨 등 수상자들이 지난달 30일 매일신문을 방문해 정창룡 사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우씨엠(주)-법무법인 YK 업무협약 종합 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은 최근 대구 동우센터빌딩 스타홀에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주거 서비스와 관련한 전략적 업무 제휴로 법률 자문과 자료 제공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새마을문고 대구지부, 글그림대회 작품 전시회·북토크 새마을문고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이승로 수성고량주 대표)는 지난달 29일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글그림 경진대회 작품 전시회와 학부모들의 북토크 행사를 가졌다.



K-water 구미사업단, 상생협의체 회의·하도급 간담회 K-water 구미사업단(단장 김태갑)은 지난달 30일 건설공사 관계자들과 상생협의체 회의 및 하도급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봉사단 어린이재단에 3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 봉사단(단장 이병희)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디딤씨앗플러스 캠페인'에 일시 자립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디딤씨앗플러스는 대구시와 함께 지역 내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대구시학원총연합회-북구 적십자사 '삼계탕' 나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박명수)와 대구시학원총연합회(회장 정동화)는 지난달 30일 적십자 대구지사 강당에서 북구 지역 취약계층 180가구를 위한 '사랑의 복 삼계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 새동산병원 '인공신장센터' 개소 대구 서구 새동산병원(병원장 장동환)은 지난달 28일 인공신장센터 개소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정하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아너 소사이어티' 경주 24호, 경북 143호로 김정하 ㈜건축사무소 '길인' 대표가 가입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에서 가족과 함께 참석한 김 대표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다"며 "아동·청소년이 차별과 부족함 없이 희망찬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가입으로 경북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43명 가운데 경주시에서 24명째 회원이 탄생했고, 경주시는 이날 시청 본관 2층 복도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존'에 김 대표의 사진을 내걸었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대구교통단체연합회장 장세명 씨



대구시교통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대구시교통단체연합회 회장에 수석부회장인 장세명 대구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인물 수첩

류득곤 경북도119특수대응단장



류득곤(57) 신임 경북도119특수대응단장은 지난달 30일 "도내 자연재해 및 특수재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 출신으로, 1988년 임용된 뒤 경북소방본부 예산회계팀장, 소방장비팀장, 구조기획팀장, 포항북부소방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장



유문선(54) 신임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지난달 30일 "직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 환경을 조성해 포항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소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포항이 고향인 그는 영덕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사채용팀장·회계장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배형욱 기자

인당봉사상 대상 신현빈 군·보현효행상 대상 김지은 양

대구보건대 수상자 64명 시상

"신 군 1천 시간 넘는 봉사 실천 김 양 거동 불편 외조부모 봉양"



지난달 29일 대구보건대에서 열린 제25회 인당봉사상·보현효행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보건대 제공

대구보건대(총장 남성희)는 청소년들의 봉사와 효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25회 인당봉사상과 보현효행상 수상자 6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구보건대는 지난달 29일 대학 본관 소회의실에서 남성희 총장을 비롯해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당봉사상·보현효행상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5월 전국 106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재학생 162명을 추천받아, 외부 인사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당봉사상 대상에 신현빈(부산 부경보건고) 군, 보현효행상 대상에 김지은(대구 달서고) 양을 선정했다. 부문별 1명씩 우수상 2명, 봉사상·효행상 15명, 인당봉사상 장려상 30명을 선정했다.

신현빈 군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1천158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 군의 담당교사는 "현빈이는 성실한 학생으로 궂은일이나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솔선하는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전했다.

신 군은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며 인도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다"며 "봉사활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고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양은 2년 연속 선행 부문 학교장 표창장과 올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봉양하며 늘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기특한 학생이다.

김 양의 담당교사는 "거동이 불편해 장애 등급을 받은 외할머니를 대신해 식사를 본인이 준비하고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학업에도 충실해 성적도 최상위권이다"고 했다. 또 "지은이 외할머니와의 상담에서 '나는 우리 지은이 때문에 삽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깊은 마음의 울림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인당봉사상·보현효행상 제도가 발전하고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많은 학생을 훌륭하게 키우고 가르친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한 학생들 덕분이다"고 했다.

대구보건대는 대상인 신현빈 군과 김지은 양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봉사상과 효행상 수상자에게는 각 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올해 25회를 맞은 인당봉사상·보현효행상은 현재까지 2천863명의 청소년을 발굴해 시상했으며, 6억13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김희숙 의용소방대원 119의인상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 소방청에서 개최된 119의인상 시상식에서 경주소방서 문무대왕 여성의용소방대 김희숙 대원이 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의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된 상이다. 올해 7명을 포함해 총 38명이 수상했다.

김희숙 대원은 지난 3월 20일 낮 12시 40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 일요장터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예감하고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활약했다.

당시 장터에는 일요일을 맞아 인근 상인과 관광객 등 16명이 농산물 매매를 위해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평소처럼 농산물을 판매 중이던 김 대원은 낙석 등 산사태 조짐이 보이자 신속히 주변 사람에게 외쳐 대피를 유도하고 119신고를 요청했다.

또한 낙석으로 부상을 당한 상인(77)이 발생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한 장소로 구조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사고 정보를 제공해 수습에도 도움을 줬다.

김희숙 대원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인사

◆대구 수성구청 〈4급 승진〉▷행복나눔과장 박시하 〈6급 승진〉▷민원여권과 최명록 ▷정보통신과 김수철 ▷교육지원과 박소정 ▷생활보장과 조은희 ▷행복나눔과 곽수연 ▷교통과 최현창 ▷건설과 정연정 ▷공원녹지과 김정근 ▷기획예산과 박정민 〈6급 파견 연장〉▷문화예술과 최재원

◆경주시 〈4급 승진 및 전보〉▷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예병원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5급 승진 및 전보〉▷공보관 백상희 ▷청렴감사관 김대학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투자유치과장 황훈 ▷정수과장 이석훈 ▷회계과장 금창석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안강읍 총무과장 전재헌 ▷문무대왕면장 고남우 ▷내남면장 이종주 ▷황남동장 최인석 ▷용강동장 윤병록 ▷보덕동장 고영달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외동읍장 김기호 ▷양남면장 신진욱 ▷문화재과(파견 예정) 임재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천북면장 이태익 ▷일자리창출과장 직무대리 박달규 ▷원자력정책과장〃박준호 ▷안강읍 지역개발과장〃손기복 ▷산내면장〃김재훈 ▷안강읍 민원복지과장〃이채두 ▷중부동장〃최해원 ▷시립도서관장〃차정훈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진 ▷동궁원장〃이규대 ▷환경과장〃이채우 ▷정보통신과장〃손종철

◆예천군 〈5급 승진〉▷체육사업소장 직무대리 김도윤 ▷행정지원실(의회 파견) 박대석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권기화 ▷건강증진과장〃박미준 ▷환경관리과장〃김동태 ▷소득개발과장〃손영옥 〈5급 전보〉▷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행정지원실(의회 파견) 장덕철 ▷예천읍장 이용수 ▷효자면장 김세일 ▷보문면장 박근하 ▷지보면장 이병일 ▷농정과장 권석진▷개포면장 박근노 ▷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남기 ▷호명면장 이옥기 〈6급 승진〉▷행정지원실 노대균 ▷도시과 김영문 ▷예천읍 이은아 ▷지보면 황수영 ▷농촌활력과 이정일 ▷보건소 김영철 ▷용궁면 권석원

◆(주)서한 ▷건축본부장 강왕기 ▷경영지원본부장 김민석 ▷영업본부장 손인택 ▷기술혁신본부장 박규학 ▷재경팀장 김현수 ▷연구지원팀장 오동훈 ▷업무팀장 이응도 ▷개발사업1팀장 조현영

◆영남대 〈대학 본부〉▷RIS사업추진본부 본부장 김재춘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장 사종엽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부단장 김성호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부단장(메타지원센터장 겸직) 유용민 ▷〃전자정보기기사업단장(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부단장 겸직) 최규상 ▷〃HuStar 물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 정진영 ▷〃HuStar 물산업 혁신대학사업단 부단장 서정현 ▷대외협력처장 임성우 ▷총장실 비서실장 박상철 ▷사회공헌단 부단장 송민석 ▷학생부처장 박순지 ▷기획부처장 박재찬 〈대학 및 대학원〉▷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장 김도연 ▷경영행정대학원 부원장 이경탁 〈부속 및 부설기관〉▷의료원 의학연구처장(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단장 겸직) 원규장 ▷의료원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 김용대 ▷산학협력단 기업협업센터장 김진호 ▷세노테라피 기반 대사질환 제어 연구센터장 박소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실장급 승진〉▷경영지원실장 윤선미 ▷전남지역본부장 염동일 〈팀장급 승진〉▷예산투자팀장 유지용 ▷클러스터성과팀장 주영철 ▷그린산단팀장 하민근 ▷산단펀드사업팀장 안보광 ▷개발기획팀장 오희원 ▷전남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김원섭 〈본부장·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문문철 ▷안전실장 심광섭 ▷기업지원실장 김은철 ▷구조고도화사업실장 안무권 ▷경기지역본부장 박진만 ▷충청지역본부장 최경용 ▷강원지역본부장 권오성 〈팀장급 전보〉▷정보전략팀장 이동열 ▷운영지원팀장 윤홍민 ▷스마트플랫폼팀장 임정진 ▷산단공간혁신팀장 안광혁 ▷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김경오 ▷경북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성현찬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윤영수 ▷경남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이강수 ▷경남지역본부 스마트그린산단팀장 장광호 ▷김해지사장 안충용 ▷충청지역본부 산단혁신팀장 정재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석급 승진〉▷감사 윤리팀장 주충호 〈책임급 승진〉▷경영지원실 총무회계팀 이가희 ▷경영지원실 안전보안팀 정현철 ▷경영지원실 안전보안팀 허범룡 ▷인증평가사업단 기술지원팀 장대철 ▷혁신지원사업단 사업총괄팀 김종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3급 승진〉▷총무과장 문승철 〈4급 승진〉▷달성군선관위 사무국장 박노중 〈4급 전보〉▷선거과장 이희영 ▷지도과장 조경기 〈5급 전보〉▷조사담당관 김기철 ▷지도과 권준훈 ▷수성구선관위 선거담당관 표지연

오늘의 운세 7월 1일(음력 6월 3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특히 문서와 관련된 매매 계약은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돼요. ▶48년생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하고 마음이 자꾸 변동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0년생 가장 어려운 시기는 막지나고 새롭게 금전운이 솟아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72년생 추진하던 일에 막힘이 많을 수 있으니 전체 흐름을 잘 보고 관리에 신경 쓰세요. ▶84년생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요.



소

▶37년생 좋은 운이 열려 있으니 긍정의 마인드를 잊지 말고 마음을 딱 결정해야 유리해요. ▶49년생 투자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결정하지 마세요. 한 템포 늦추어도 무난해요. ▶61년생 재물과 연관된 기회나 제안이 생기지만 성급함보다는 침착하게 살펴봐야 해요. ▶73년생 움츠린 날개를 당당하게 펼치세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어요. ▶85년생 골치 아픈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하세요. 오늘은 사람 관계가 혼란할 수 있습니다.



범

▶38년생 행운의 기운이 들어오니 정성껏 노력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게 돼요. ▶50년생 불편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득 또한 생기니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세요. ▶62년생 강하게 주장을 펼치기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상대방을 조절하고 조율하세요. ▶74년생 지혜롭게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세요. 활짝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86년생 부족하고 미숙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준비하세요. 철저한 만큼 성공합니다.



토끼

▶39년생 의견 차이도 있고 심리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니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51년생 조금 더 많은 물을 받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집니다.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63년생 신경 쓰이는 문제들만 얼른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원만하고 평탄한 하루가 돼요. ▶75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니 위치가 훨씬 좋아지고 동료들도 함께 빛나게 돼요. ▶87년생 냉정하게 처리하세요. 정에 치우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니 조절을 잘하세요.



용

▶40년생 더 좋은 때를 기약하면서 내실을 쌓으세요. 수입 지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52년생 충동적인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언행하면 의외의 함정이 생겨납니다. ▶64년생 일의 진척이 있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생각대로 진행하지만 부딪힘도 있어요. ▶76년생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싸주세요. ▶88년생 불필요한 농담은 되도록 자중하세요. 신뢰 있는 말과 분명한 입장 표명이 좋아요.



뱀

▶41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작은 결실은 볼 수 있지만 배포 있는 투자 투기는 조심해야 해요. ▶53년생 신뢰있는 사람과 일을 진행하면 일거리도 늘어나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돼요. ▶65년생 추진력은 좋지만 경솔하게 떠맡으면 책임만 늘어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요. ▶77년생 능력이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큰 욕심 없이 노력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89년생 시작하고 늘리고 확장하는 건 부담되는 날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말

▶42년생 예민한 반응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아량을 베푸세요. ▶54년생 일을 위해 손을 잡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대화로 소통하세요. ▶66년생 올바르고 이성적으로 처신하세요. 베풀고 보살펴 주는 마음에서 행운이 깃듭니다. ▶78년생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고 작지만 긍정적인 작용이 생겨납니다. ▶90년생 애정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썸만 타고 있었다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양

▶43년생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안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무리하세요. ▶55년생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일이 잘 풀려 갑니다. 외부 활동력이 파워 있게 상승합니다. ▶67년생 모든 것이 생각뿐일 때는 한발 물러서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79년생 허탈하고 자신감도 떨어지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돼요. ▶91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모든 일에 성급하게 행동하면 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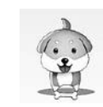
원숭이

▶44년생 추진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아요. ▶56년생 노력만큼 성과가 있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운이니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갈등에 휘말리기 쉽고 특히 언행 때문에 약점을 잡힐 수 있습니다. ▶80년생 평소에 이성을 사귀기 쉽지 않았던 사람도 오늘은 원만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요. ▶92년생 투쟁하고 언쟁하면 불리합니다. 최대한 입을 무겁게 하고 조언을 들어야 해요.



닭

▶45년생 내 주장이 옳더라도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 의견도 경청하며 배려심을 보여줘야 해요. ▶57년생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오늘은 마음을 비워야 해요. ▶69년생 외부 활동보다 가정에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나 자신을 점검하고 화목을 이끄세요. ▶81년생 기대부터 하면 실망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확인하세요. ▶93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진취적인 태도라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개

▶46년생 상대를 폭넓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주세요. 말부터 앞서면 신뢰를 잃게 돼요. ▶58년생 이치가 명확한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 착오 때문에 실패수가 있어요. ▶70년생 나약함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나가고 소신 있게 행동하면 금전 이득이 생깁니다. ▶82년생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희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94년생 동료와 불화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조절이 필요하지만 추진력은 강한 날이에요.



돼지

▶47년생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이럴까 저럴까 구상이 많아서 복잡하고 혼란해요. ▶59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후회만 남게 돼요. ▶71년생 경제적인 여유를 생각하고 투자한다면 오늘은 적합하지 않으니 자중해야 해요. ▶83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심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바라는 결실을 이뤄요. ▶95년생 답답한 일이 있었다면 우연한 기회로 도움을 받게 되니 결속력 있게 협력하세요.

자기 관리 위해 변신한 박나래의 홈짐



MBC '나 혼자 산다' 오후 11시 10분

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TV '나 혼자 산다'에 스타들의 싱글 라이프 박나래의 홈짐이 공개된다.

박나래는 말로만 하는 식단 관리, 체중 관리를 보여주며 전현무와 '관리 듀오'라는 애칭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전 운동에 나선다. 김종국의 특급 비법을 전수받아 최상위급 난도의 헬스 기구로 방 하나를 홈짐으로 변화시킨다.

박나래는 거울 앞에서 눈앞에 닥친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해 공감과 폭소를 동시에 자아낸다. 사실 박나래는 각종 홈트레이닝을 섭렵하는가 하면, 웬만한 남성을 거뜬히 뛰어넘는 팔힘을 자랑해 온 터. 다시금 운동인 정신을 불태우기 시작한 그의 하루가 기대를 높인다. 홈트에서 홈짐으로 진화한 만큼, 운동 강도 역시 월등히 높아졌다고 해 관심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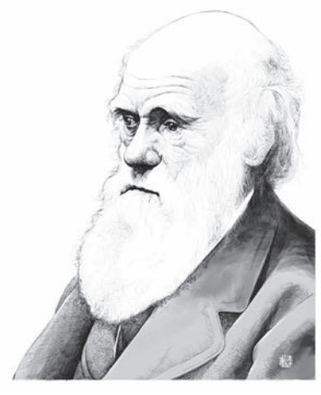
땀으로 샤워한 박나래가 눈물을 머금고 근육 강화 중인 모습이 포착된다.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화부 이신혜 tvbox@imaeil.com

cpbc FM 93.1 MHz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신우신 낮 12시 15분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858년 7월 1일 다윈 '자연선택설' 발표



뉴턴, 갈릴레이와 함께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과학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근간이 되는 이론인 '자연선택설'을 발표했다. 자연선택설은 생물의 어떤 종의 개체 간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만이 살아남고, 부적합한 것은 멸망한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개체 간 경쟁이 항상 일어나고 자연의 힘으로 선택이 반복되는 결과, 진화가 생긴다고 하는 설이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5:00 앙코르 강에서 본 세계	5:00 테마스페셜(재)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10 행복충청전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1부 / 25 모닝와이드 2부	50 한국기행(재)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7:10 TBC 굿모닝 뉴스	6:10 세계테마기행(재)
7:50 인간극장	7:00 해 볼만한 아침 M&W	50 전국시대	40 모닝와이드 3부	7:00 엄마 까투리(종합)
8:25 아침마당 대구	9:00 KBS 아침 뉴스타임	8:50 일일드라마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30 뽀로로 동화나라 / 45 로보카 폴리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0 일일연속극	〈비밀의 집〉(재)	50 좋은 아침	8:00 딩동댕 유치원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으라차차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9:55 SBS 10 뉴스	20 블루이 / 50 마샤와 곰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인간극장 스페셜	45 기분 좋은 날	10:15 TBC 뉴스	9:00 동그리섬의 버네사
10 영상앨범 산(재)	40 지구촌 뉴스	10:45 탐나는 TV	30 브런치 톡	15 토닥토닥 마음아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11:00 주말드라마	11:45 뚝딱구조대 2	11:30 고향이 보인다	40 부모 클래스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현재는 아름다워〉(재)	12:00 12 MBC 뉴스	12:00 SBS 12뉴스	10:30 한국기행(재)
		20 금토드라마	30 민방 네트워크 NEWS	50 최고의 요리비결
		〈닥터로이어〉(재)	50 금토드라마〈왜 오수재인가〉(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 10 EBS 초대석
1:00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00 뉴스브리핑	1:00 이것이 야생이다3(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0 KBS 뉴스타임	50 2시 뉴스 외전	4:00 싱싱 고향별곡(재)	50 배움이 꽃피는 나무
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갤럭시 키즈(재)	3:20 꾸러기 식사교실	5:00 SBS 오뉴스	2:20 야생의 작은 거인
10 세상다반사(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기분 좋은 날(재)	30 TBC대경뉴스광장	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3:00 라이브 오늘 스페셜	4:00 생생정보 스페셜	4:55 5 MBC 뉴스	50 생방송 굿데이	3:05 클래스 e (3) / 25 지식채널e(1)(재)
4:00 사사건건	5:10 뮤직뱅크	5:10 모두의 TV 스페셜		30 지식채널e(2)(재)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5 세상을 비집고(재)
30 라이브 오늘				4:05 영어 스토리 타임
				15 페파 피그 /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6:00 6시 내고향	6:30 2TV 생생정보	6:05 테마기행 길	6:50 생방송 투데이	5:00 EBS 뉴스
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7	7:50 일일드라마	7:05 일일드라마	7:50 SBS 8뉴스	2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40 쉬어가도 괜찮아 마이크로여행	〈황금가면〉	〈비밀의 집〉	8:30 TBC 8뉴스	30 로보카 폴리(재)
8:00 지역의 사생활	8:30 신상출시 편스토랑	40 MBC 뉴스데스크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30 일일연속극		8:50 금토드라마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으라차차 내 인생〉		〈닥터로이어〉(재)		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7:00 타타와 쿠마(재)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00 슈퍼맨이 돌아왔다	9:50 금토드라마	9:00 궁금한 이야기 Y	20 자이언트 펭TV(재)
10:00 주문을 잊은 음식점2	11:30 유희열의 스케치북	〈닥터로이어〉	10:00 금토드라마	35 자이언트 펭TV
50 다큐 온	1:00 우리끼리 작전타임(재)	11:10 나 혼자 산다	〈왜 오수재인가〉	50 건축탐구-집(재)
11: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0 악카펠라 스페셜	11:20 문명 특급 영화인 대잔치	8:40 세계테마기행
12:10 독립영화관〈액션히어로〉			12:20 굿데이 스페셜	9:30 한국기행 / 50 명의
1:4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20 화첩기행(재)	10: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3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55 EBS 스페이스 공감
3:45 아침마당(재)				12:45 금요극장〈이보다 좋은 순 없다〉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0:00 I♥베이스볼	12:00 베이스볼 투나잇	12:00 2022 KLPGA 맥콜 ·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11:3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여자 양궁 개인	10:00 제10회 하찬석국수배 영재최강전
12:00 2022 FIVB여자발리볼네이션스리그	13:30 2022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포틀랜드	14:00 2022 KLPGA 맥콜 ·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14:40 2022 KBO리그 두산:롯데	12:00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14:00 I♥베이스볼 미니	15:30 2022-2023 경주 블루원리조트 PBA 챔피언십	16:00 2022 KLPGA 맥콜 ·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17:20 베이스볼S	16:30 제5회 오카게배 국제신예바둑대항전
18:20 KBO리그 롯데:LG	18:30 KBO리그 +KIA : SSG	18:00 2022 KLPGA 맥콜 ·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18:20 2022 KBO리그 삼성:NC	19:00 2022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22:20 I2022FIVB여자발리볼네이션스리그	22:00 베이스볼 투나잇	21:00 2022 리브 골프 인터테이셔널 포틀랜드	22:00 베이스볼S	23:00 제15기 YES24배 고교동문전
24:00 I♥베이스볼 미니	23:00 베이스볼 투나잇	22:30 토탈골프 프로vs아마 챔피언십	24:00 WBA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24:30 제9기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 HL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한국경제 TV
10:00 극락도살인사건	11:20 빅뱅이론1	11:30 북샵	11:25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	10:30 주식경제
12:10 기방도령	13:10 시절인연	13:45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12:00 구름 위를 걷다	13:00 나의 투자
14:30 런던해즈폴른	15:40 밀리터리맨	15:40 체이싱	15:00 경제현장 오늘	16:00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16:20 엔젤해즈폴른	17:45 CSI:NY3	17:15 테이크다운	17:55 뉴스 프리즘	18:00 뉴스플러스
18:50 오케이마담	20:45 십개월의 미래	19:15 프리퀀시	21:00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20:00 경제전쟁 꼰 시즌2
23:00 NCSI하와이	22:40 인사이더	21:40 컬러풀웨딩즈	23: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30 한경 글로벌마켓

드라마·오락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2:00 연애의 참견3	10:30 라디오스타	11:30 나는 솔로	10:40 벌거벗은 한국사	11:20 지구에 무슨 129? 스페셜
13:20 징크스의 연인	12:10 악카펠라	14:40 미운 우리 새끼	12:10 이브	13:20 잠적
16:00 무엇이든 물어보살	16:30 놀면 뭐하니?	16:4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4:50 유 퀴즈 온 더 블록	16:00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18:50 슈퍼맨이 돌아왔다	18:0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8:2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6:50 백패커	19:00 저 세상 중고차 GEAR GODS
21:3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1:10 나 혼자 산다	21:10 나는 솔로	20:50 뽕뽕 지구오락실	20:00 잠적
23:50 영화가 좋다	22:50 러브마피아	22: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2:40 O'PENing	22:40 크라임 퀴즈쇼 풀어파일러

종편·보도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11:00 나는 자연인이다	10:30 귀농, 성공의 조건	10:00 인사이더	10: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11:50 뉴스N이슈
13:40 국대는 국대다 스페셜	13:00 보도본두 핫라인	13:15 세계 다크투어	12:00 뉴스A LIVE	13:30 더뉴스
16:30 뉴스파이터	16:00 국가가 부른다 베스트	15:10 썰전 라이브	14:20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15:50 뉴스Q
19:00 MBN 뉴스7	19:00 건강한 참견	18:10 사건반장	17:20 뉴스 TOP10	17:50 이브닝뉴스
20:10 천기누설	21:00 TV CHOSUN 뉴스9	21:00 유명가수전-배틀어게인	21:30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21:45 뉴스나이트
23:50 특종세상	23:00 우리 이혼했어요 2	22:50 플라이 투 더 댄스	23:00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	23:50 자정뉴스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10:30 드래곤디와 노래해요	11:00 슈퍼다이노	11:00 극장판 뽀로로	10:30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	11:40 Greatest Treasures of The Ancient World
12:00 신비아파트외전 기억, 하리2	13:00 말량&홍챠TV	13:00 가면라이더 세이버	13:00 톡으로 나누는 과학 이야기, 과톡	13:30 Ultimate Airport Dubai 3
16:00 매지컬 파티	15:00 가면라이더 이그제이드	15:00 디지몬 어드벤처	16:00 사이언스 투데이	16:15 Locked Up Abroad
19: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17:00 메카드볼 NEW에피소드	18:30 놓지마 정신줄	18:00 추적 몬스터	19:00 Brain Games: On the Road
21:00 명탐정 코난 극장판23	21:00 쉐어TV 버라이어티	21:00 젬브링tv NEW 어드벤처	20:00 테마기행 세기의 절경	21:00 Ultimate Airport Dubai 3
24:00 짱구는 못말려X파일	23:00 이리지니TV	22:00 소년탐정 김전일 Original 3	23:00 사이언스 투데이	23:00 Lawless Island 5

종교·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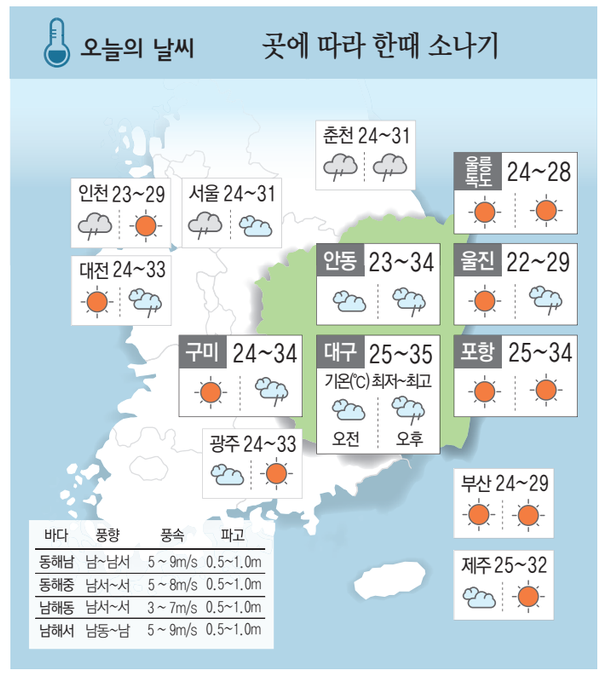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l
10:00 cpbc 뉴스	10:30 사시불공	11:0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00 BBC World News	12:00 CNN Tonight
13:00 유럽의 수도원	13:00 강화도 보문사 용왕이 산다	13:00 생명의 삶	12:30 HARDtalk	14:00 CNN Newsroom
16:00 가톨릭 둘레 특강	15:20 증엄스님의 불교설화	16:20 칩 잉그램의 평안을 선택하라	15:45 World Business Report	16:00 CNN Newsroom
18:00 저녁기도와 전례	18:00 저녁예불	18:10 CGN〈북세미나〉책걸음2	17:30 HARDtalk	18:00 Early Start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21:30 천년의 기다림	21: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21:00 Impact with Yalda Hakim	21:30 World Sport
23:00 가톨릭 명화극장	22:00 BTN뉴스	23:00 맥스 루케이도의 에스더	23:30 HARDtalk	23:00 Connect the World

교육방송

EBS플러스1				
5:0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II	1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세계지리	17: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	23:40 발전[2023 수능특강] 기하	방송대학 OUN
5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화학 II	12:0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 · 신유형] 영어	18: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II	24: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9:00 미디어와 사회
6:4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지구과학 II	5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확통	19: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기하	1: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11:00 100세 경제
8:2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수학 I	13:4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 · 신유형] 수학+확통	20: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2:30 문화유산 코리아	13:00 중급일본어활용 1
9:1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	14:3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 · 신유형] 수학+미적분	2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 어휘	40 한 컷의 과학 시즌2	16:00 중국어 3
10: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지리	15:2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미적분	22:0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미적분	50 클래스 e (2)	19:00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16:1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확통	50 발전[2023 수능특강] 미적분	3:10 매일 10분 영어	23:00 100세 경제
EBS2				
6:00 EBSe 생활영어(재)	10:00 초등1 – 수학	14:00 음악 나리의 앨리스	18:00 슈퍼두퍼 잉글리시	
30 EBSe 생활영어	30 초등2 수학	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7:00 왕초보 영어(재)	11:00 초등1 – 창의체험(2)	15:00 할 수 있다고 2	19:00 형사 가제트	
8:00 Seasame street	30 초등2 – 창의체험(2)	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30 하트가 빛나는 순간	
30 매일 10분 영어	12:00 형사 가제트	16:00 스쿨랜드-과학	20:00 정글 플래닛 / 30 세상을 비집고	
9:00 초등1 – 국어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20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21:00 배움이 꽃피는 나무	
30 초등2 – 국어	13:00 방귀대장 뿡뿡이	17:20 즐거운 수학 EBS MATH	3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0 뭐든지 뮤직박스	50 영어 스토리 타임	50 가만히 10분 멍TV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오늘의 날씨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2(토)	3(일)	4(월)	5(화)	6(수)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 뜸	05:13	달 뜸	06:38
해 짐	19:46	달 짐	21:39

지역	만조	간조
포항	15:37	00:24
	–	–
부산	09:26	03:21
	21:56	15:32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 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 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 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 ——— 1666-5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 ———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 ———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 ———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 ———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4번출구
- 천주성삼병원 ———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 대구의료원 ——— 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 ——— 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 ——— 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병 원

- 수성메트로병원 ——— 743-7777
  남부정류장네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 ——— 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 ——— 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 ———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 254-8164
- 〈중구〉한성약국 ——— 425-5575
- 〈동구〉팜프라자약국 ——— 607-2733
- 〈서구〉경명약국 ——— 355-7255
- 〈수성구〉시지광장약국 ——— 792-8297
- 〈북구〉형우당약국 ——— 358-9696
- 〈북구/칠곡〉강북약국 ———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 586-7900
- 〈달성군〉중앙약국 ———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 252-1325

당직 변호사 (1일)서인규 (2일)최지혁 (3일)최지형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장금보제 콘이름
053-241-3456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겨울 바이칼호 아이스 다이빙 꼭 하고 싶어"

야수의 당신이 궁금합니다 휠체어 다이빙 선구자 도현욱 씨

물속선 육지보다 신체 자유 느껴
14년 전 불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축복"
장애인 스킨스쿠버 2기 모집 계획


'죽었다 사는 남자' 도현욱 씨가 끝없는 자신의 도전 인생을 말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휠체어를 탄 채로 수중 다이빙을 즐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죽었다 사는 남자'. 이번 인터뷰이는 인간 승리, 감동의 도전자 도현욱(52·세계수중연맹〈CMAS〉 트레이너) 씨.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킨스쿠버 캠프 1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2기를 모집 중이다. '이게 가능합니까'라는 댓바람 질문에 "일반인 스킨스쿠버도 장비 때문에 힘든데, 휠체어를 타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 배 이상 힘들죠.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더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고, 몇 배의 즐거움이 있죠"라고 답했다.

캠프 1기에는 6명의 장애인이 함께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신체 능력을 테스트받은 후 하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로 참여했다. 도 씨는 "참 힘든 일이죠. 그래도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론 교육이 끝나고 바다로 실습을 나가면,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고 밝혔다. 스킨스쿠버 캠프 교육은 이론뿐 아니라 입수용 휠체어와 안대를 활용해 다이빙 풀 입수, 바다 다이빙 장애 유형별로 실습이 세분화돼 있다.

휠체어 다이빙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 이 때문에 안전장비를 비롯해 어시스턴트들이 늘 함께한다. 더불어 수심 18m 이상의 위험한 곳에는 내려가지 않는다. 캠프 1기 참가자들은 "장비 이동을 비롯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육지에서보다 더 큰 신체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물속이 주는 편안함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누가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 했던가. 도 씨의 삶이 바로 그렇다. 그는 14년 전 제주도 관탈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해양정을 인양하다 수심 80m 지점에서 호흡곤란 상태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수면 위까지 올라왔다. 간신히 살기는 했지만 당시 한쪽 팔만 까딱할 뿐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후 힘든 재활 과정을 통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해 이제는 상반신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도 씨의 도전은 끝이 없다. 10년 전에는 휠체어 자전거로 인천 서해갑문에서 출발해 9일 동안 달려서 부산 낙동강 하굿둑 국토종주 인증센터까지 702㎞ 국토종단 자전거길을 완주하기도 했다. '뭘 또 도전할 게 남았냐'는 질문에는 "혹독한 겨울에 세계 최대의 호수 바이칼호에서 '아이스 다이빙'을 꼭 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즉흥 삼행시를 요청하자, '▷도=도전이다 ▷현=현재도 미래도 ▷욱=욱아~~~. 파이팅!'이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부딪치고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도 씨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온 후에 삶의 작은 부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 특히 그는 인터뷰 말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곁을 지켜준 아내(나순옥)와 사랑하는 딸(도혜민), 아들(도승현)에게 영상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휠체어 다이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이미 선진국에는 교육과정도 체계화되어 있고, 많이들 즐기고 있다. 도 씨는 "위험하고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수중의 자유로움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며 "대구에서 출발한 장애인 스킨스쿠버 캠프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도현욱과 함께하는 장애인 스킨스쿠버 캠프'는 1기를 무사히 마치고, 2기 캠프 지원자도 모집 예정이다.

권성훈 기자 cdrom@imaeil.com

그립습니다 김현진(경일여중 교사) 씨의 오빠 고 김기진 씨

"부모님에겐 자랑이었던 아들, 막내인 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였죠"


김현진 씨가 4~5세 쯤에 김 씨 어머니와 남매들이 함께 소풍 가서 촬영한 사진. 사진 왼쪽 첫 번째가 김 씨의 오빠 고 김기진 씨,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 씨. 작은 사진은 고 김기진 씨의 생전 모습. 가족 제공

얼마 전 고3인 딸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며 바꿔 달라고 합니다. 고3이 휴대폰 자주 볼 일이 있겠냐며 수능 칠 때까지만 그냥 쓰면 안 될까 했더니 "삼촌이 있었으면 최신형으로 바로 바꿔 줬을 텐데…"라며 말을 흐립니다. 항상 조카 편이 되어 주던 삼촌은 제게 하나뿐이었던 오라버니, 저의 오빠입니다. 지금도 제 가슴 한쪽에는 늘 오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였고, 결혼 후 미국에서 지내는 언니에게도 매우 좋은 남동생이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미국에 있는 언니와 아직 미혼인 오빠를 대신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지만 언제나 오빠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019년 2월 어느 날, 오빠가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아주 담담한 태도로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라고 하더라'라며 진단서와 약봉투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니, 그것도 4기라니!

한 달 후, 여전히 망설이는 오빠를 설득해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실까 염려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오빠는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고생하실까 봐 일부러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오빠는 대구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저는 퇴근하면 병원에 들러 오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위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8월 초부터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종양이 뼈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오면서 체중이 점점 빠지면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 만큼 기력이 떨어졌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기 때문에 9월 초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도 오빠랑 저 둘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소에는 남매끼리 마음을 다 표현하며 살지 못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같이 보낸 어린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남매끼리 맨날 싸운다며 주말 아침 아버지께서 셋이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받아오라고 하셨던 일, 투덜거리며 집을 나섰지만 약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까르르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던 일, 부모님이 모임에 가셨을 땐 언니가 돈을 내고 내가 라면을 사 오면 오빠가 맛있게 라면을 끓여 주었던 일, 아빠가 아들인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면서 제게는 그러시지 않으셔서 서운했던 일, 잘생긴 우리 오빠 보려고 중학교 시절 제 친구들이 매일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던 일, 오빠가 그걸 알면 기고만장해질까 봐 오빠에겐 말 안 했던 일 등에 대해서 하나씩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우리 오빠라서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했다고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기뻤을 때가 조카인 제 딸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못 해 본 일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도연이가 커 가는 모습을 못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오빠는 눈물을 보였었죠.

오빠와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 가슴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그립고,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오빠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 그리운 마음을 서로 위로하면서 항상 오빠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아들, 엄마에게는 믿음직한 아들, 언니에게는 착한 남동생, 조카에게는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는 미남 삼촌이었던 우리 오빠.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늘 웃으면서 편히 지내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식중독 잡고 무더위 날리자

기 고



김 영 균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여름이 시작되면 삼계탕과 치맥은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누구나 선호하는 음식으로, 계절 성수 식품답게 전국적으로 닭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어느 때보다 바빠진다.

특히, 대구경북은 '닭'과 매우 친밀한 지역이다.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약 50%가 대구와 경북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대구 옛 지명인 달구벌이 '닭의 벌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단언컨대 닭 산업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식음료 문화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에도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으로 주요 원인 식품이 닭, 오리 등 가금육과 달걀이기 때문이다.

가금류는 포유류와 달리 배설과 산란이 총배설강이라는 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닭 장내에서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이 가금육과 달걀 껍데기에 자연적으로 묻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살모넬라균은 열에 매우 약한 세균이기에 손질, 조리 시 취급자들이 각별한 주의와 3가지 원칙만 실천한다면 충분히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인 조리 전·후 손 씻기다. 만약 조리 중 생닭이나 달걀을 만졌다면 반드시 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손으로 식재료나 그릇 등을 만진다면 살모넬라균이 다른 음식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씻기 습관만으로도 식중독 발생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조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생닭이나 달걀을 날것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하며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닭의 살코기는 붉은색이 보이지 않도록 중심부 온도 7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여 충분히 익히고 조리 시 칼·도마는 물론 다른 식재료 및 조리기구까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셋째, 닭과 같은 가금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비해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5℃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접촉만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생닭과 달걀은 조리 과정이나 냉장고 보관 중이라도 다른 식재료와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닭 농장부터 가공하는 업계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금육과 달걀을 가공하는 식육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생산 제조 과정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와 달걀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업계의 노력과 조리자의 주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닭고기와 달걀 섭취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통해 그간 코로나19의 답답함을 날려 보내고, 삼계탕으로 건강을 다지는 활기찬 여름을 기대해 본다.

영원한 것은 없다

춘추칼럼



심윤경
소설가

정치 중심지서 새 단장 나선 광화문
고요하던 청와대는 이제 시민공원

부모님과 추억 담긴 공간 둘러보며
변해버린 모든 것에 세월 흐름 느껴

우리 집은 광화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광화문에도 사람이 사느냐는 반문이 흔히 돌아오곤 한다. 광화문에도 사람이 산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출장을 가면 헬리콥터가 우리 집 위로 날아갔다.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대통령의 지방 일정을 모르고 넘어가기 어려웠다. 이제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었으므로 그 일도 모두 추억이 되었다.

광화문이라는 특별한 동네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 이래저래 정치가 일상생활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내가 30대였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한 번 출타할 때마다 20~30분은 족히 걸리는 교통통제를 했다. 대통령의 일정만 중요하고 시민들의 스케줄이야 아랑곳없던 시절이었다. 하염없이 서 있는 버스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화통을 터뜨리는 게 일상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VIP의 편의를 위한 광화문 일대의 차량통제는 차츰 사라졌다. 지난 10여 년간은 대통령 출타 때문에 교통통제로 불편을 겪은 일이 없다. 민주주의적 사고와 교통통제 기술력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묘하게 교통신호를 조작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교통경찰이 잠깐씩 일반 차량 통행을 지도하는 사이에 의전 차량은 놀라운 속도로 복잡한 도심을 통과한다. 의전 차량이 지나간 뒤 곧바로 일반 차량이 잠시 빨라진 도심 통행속도를 즐기며 그 뒤를 따른다. 이 모든 일은 1~2분 안 눈 깜짝할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기억하건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전까지 광화문 일대는 도심 시위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도심 시위는 서울역, 을지로, 명동, 대학로 하는 식으로 구도심 일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광장이 생긴 이후 광화문은 '시위의 메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이후 10여 년간 광화문 거주자는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듯 오늘의 시위 정보를 확인하며 지내게 되었다. 시위 시간은 몇 시인지, 시위대의 규모는 얼마인지, 행진 구간은 어디인지, 버스 우회 구간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 구간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족들의 등하교와 출퇴근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돼 광화문은 시위 없이 고요한 2년의 휴식기를 가졌다. 때맞춰 광화문 광장은 2020년 11월부터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쪽 보도를 연결하는 새 단장 공사에 들어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높직한 버스에서 현장을 넘어다보면 광장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새로 단장되는 그곳에는 길쭉한 원형극장같이 아래로 우묵하게 내려가는 단차 구조가 있어서 무언가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같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좋은 생각이다. 공간에 나무는 중요하다. 이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심고 전시회나 장터 같은 행사들을 열곤 했지만 언제나 그곳은 뙤약볕이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콘크리트 바닥 광장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장마가 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화창한 날을 틈타 부모님을 모시고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다. 청와대는 요새 어르신들의 에버랜드라고 할 만하다. 아침부터 경복궁역 일대에는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다. 보행이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셔틀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운치 있는 경복궁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라고 권하고 싶다. 65세 이상이라면 경복궁 입장도 무료이니 경복궁을 통과해 아름다운 경회루와 근정전을 둘러보며 신무문으로 올라가셔도 좋다. 한 바퀴 둘러보는 데 대략 8천 보에서 1만 보를 걷게 된다.

젊은 시절을 이 동네에서 보내신 나의 부모님은 특별히 감개무량하게 청와대를 관람하셨다. 청와대 서쪽의 아름다운 인왕산 자락에는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옛 마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인파와 더위로 들끓는 청와대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뚝한 청년이던 부모님은 흰 머리의 노인이 되셨고, 언제나 고요하던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어 관람객으로 가득 찼고, 광화문은 그 모습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광화문과 청와대라는 공간으로 절감한 날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김경수의 每日 희평 — 격추가 쉽지 않은 추격전



관풍루 觀風樓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여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청년, 2년 7개월 만에 최종 무죄 확정돼. '민주주의의 양념'인 줄 알고 붙였다가 소송으로 3년 가까이 고생.

○…검수완박 강행 처리 위해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당 시도에 자당 당권 주자들 잇단 부정적 입장 내놔.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던 결기가 남아 있겠지.

○…포스코 사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부서 사무실 돌며 직원들에게 성폭력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 요구해 물의. 얼굴 들이밀고 다니면 서명 안 해주기도 어렵거늘.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실장 김해용 뉴스국장 김교영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054)855-1700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FULL COLOR 전광판
& 옥상광고탑 제작전문

광고물 제작부터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 제공

계획 · 설계 · 인허가 · 제작 · A/S



Advertise by 주식회사 메카
문의전화 010.7600.6789

탑건

청라언덕



황희진
디지털뉴스부 차장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 주연 영화 '탑건 매버릭'이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박스오피스도 개봉 첫날부터 줄곧 1위다. '범죄도시 2' '브로커' '헤어질 결심' 같은 다른 좋은 한국 영화들을 제압하고 있는 건 좀 아쉽지만, 해외 영화가 대한민국 수많은 기성세대들의 못 드러냈던 마음을 읽어 주는 것 같아 반갑다.

1986년 개봉한 '탑건'의 20대 대위 매버릭은 제멋대로인 혈기에 욕심을 부리다 동료를 잃는 사고를 치고 방황도 하지만, 끝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공을 세운다. 그래서 교관이 된 건데, 36년 후 개봉한 영화에서도 교관이다. 계급은 겨우 세 계급 상승한 대령. 전작의 동기생은 맨 꼭대기 4성 장군이 돼 이제 만나기도 힘들고, 후배 기수 3성 장군은 선배 대접도 안 해주고 사사건건 자꾸 뭐라 그런다.

이걸 두고는 스크린 밖 해석이 분분하다. 별을 달면 전투기를 몰 수 없으니 진급을 포기해서, 독불장군 기질(매버릭〈Maverick〉은 독립성·개성이 강한 사람)을 못 버려 36년 동안 '찍혀서'. 그리고 매버릭을 포함한 모든 조종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만한 이유도 추측된다. 극 중의 무인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다.

매버릭 정도면 장군 조종사로 키우면 좋을 텐데, 그쯤에서 멈춰 넘겨 주고 떠나라 하는 게 세상이다. 한 번 찍히면 무서울 정도로 따돌려 낙오시키는 것도 세상이다.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며 로봇 같은 게 있으니 너흰 이제 쓸모없다며 사형선고도 내리는 게 바로 요즘 세상이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처한 상황도 저들 중 하나 내지는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환갑을 곧 앞둔 매버릭은 모두 부정한다. 퇴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처럼 등장해 보물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딸·아들뻘 부하들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은 교관 매버릭은 "더는 파일럿이 필요없는 시대가 온다"는 말에 "그럴지도, 하지만 오늘은 아냐(Maybe so, but not today)"라고 말한다.

저 말은 할리우드의 기성세대인 톰 크루즈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입증하기도 했다. 다른 영화의 후배 배우들은 컴퓨터 그래픽 배경에서 모션 캡처로 하늘을 날지만, 톰 크루즈는 직접 전투기에 탑승해 항공모함에 이·착륙한 것을 비롯해 항공 액션 장면 전부 대역 없이 소화했다. 그를 포함해 조종사로 출연한 배우들 모두 수개월간 현역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쉽고 편한 길 없고, 결국 고집이 맞다는 얘기다. 이게 지금 영화의 세계적 흥행을 만들고 있다.

1편에서는 강렬하지만 좀 불안한 청춘의 인상이 짙었던 매버릭은 이번 2편을 통해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준다. 함께 나이 먹은 기성세대들은 청춘이 흘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 내 주변, 종사하는 분야에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왠지 모를 가슴 푸근함에 용기도 좀 얻으며 극장을 나서게 되는 듯하다. '탑건 학교 36년 잘 이어져 왔네. 실은 내 삶도 되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

톰 크루즈는 단 한 번도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매버릭을 연기한 그를 보고 나니, 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다. 관객들 저마다 마음에 상이며 훈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말이다.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세상도 그런 시상자와 시상식으로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야고부 野鼓賦

조선시대 천재 시인 허난설헌의 대표작은 '곡자'(哭子)다. 곡자는 '자식을 잃고 운다'는 뜻이다. 이 시는 "지난해는 귀여운 딸을 잃었는데/ 올해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앞세웠구나"로 시작해 "애끊는 피눈물에 목이 메인다"로 끝난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절절히 느껴진다. 허난설헌처럼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사건이 끊이지 않아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한 달 넘게 실종됐다가 전남 완도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에서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을 두고 안타까움이 크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일가족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염원했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부모가 양육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는 숙지지 않고 있다. 부모에 의한 '비속 살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당한 아이들은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어떤 양형 이유'의 저자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명의 소중함이다. "태어나 줘서 고마워"라는 미혼모 소영(이지은)의 대사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할 때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동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태어나 줘서 고마워"

모현철 논설위원 momo@imaeil.com

사 설 社說

나토 정상회의 참석 비난하는 중국,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주권국의 외교에 대한 간섭으로 매우 무례하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대중(對中) 굴종 외교 시즌 2'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난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不立乎巖墻之下)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처음부터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신문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한 술 더 떠 지난달 27일 한국을 "체스판 위에 있는 강대국의 '졸'"로 폄하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23일 한국 등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지나친 간섭 아닌가'라는 질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종주국과 조공국이라는 중화(中華) 프레임에 갇혀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착오적 중화 제국주의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에 순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주권국임을 부정하는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No'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충돌을 자초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사안에 따른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오만은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9천620원, 노사 모두 불만이지만 자제·협력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9천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서로의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모두 불만이다. 노동자 측은 인상률 5.0%는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 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높아 내년도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상황에서 최근 5년간 41.6%나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동결'(시급 9천160원)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다. 7월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10월에 또 인상될 예정이다. 석탄 가격 역시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 임금 5%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경영자 측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스럽지만, 지금은 모두 절제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인상됐다.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이 개선된 면보다는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등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오죽하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장담했던 문재인 정부도 한발 물러섰겠는가.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일감이 줄어드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많이 벌고 풍족하게 쓰는 건 좋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보폭을 맞춰야 한다. 노사 양측 모두 절제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균형발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3주 만에 특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입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규제 개혁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안이다.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종대를 메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고도화에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양성"이라며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위가 반도체 관련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교육부는 7월 중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과 수도권 양쪽에 비슷한 규모로 정원을 늘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반도체산업 핵심 기반은 다수가 수도권에 있고, 기업들의 인재 수요 역시 수도권 대학에 편중돼 있다.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방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폐해는 없어야 한다.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해 지방을 살리는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수도권 팽창의 최후 저지선으로 인식돼 온 수도권정비계획기본법까지 손을 대 수도권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 국정 목표를 허물면 지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관람 당일투어 다수날짜 확보 ₩40,000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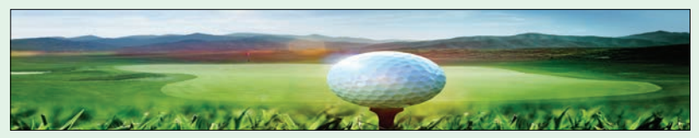
대구 섬 문화탐방 & 국내문화체험 지정여행사
50년 전통의 대구대표여행사
서라벌여행사
053)423-0011 www.surabul.com
대구-제주 초특가항공권 판매

대구 출발 제주도특선

특 가 석조 제주 3박4일 269,000원 부터
※별도지불:필수선택관광,석식,기사가이드경비,개인경비 출발일:매주 일,월,화
품 격 노팁/노옵션 제주 3일 379,000원 부터
※별도지불:개인경비 출발일:매일출발
고품격 풀옵션 제주·우도·마라도 499,000원 부터
※별도지불:개인경비 출발일:매일출발

대구·부산출발 해외여행

부산출발 북큐슈 벳부·유후인·후쿠오카 3일/4일 549,000원 부터
※별도지불:석식2회,단체비자대.기사가이드경비,유류할증료,PCR검사비 출발일:8월부터 매주 화,목,금,일
부산출발 오사카·교토·고베 3/4일 599,000원 부터
※별도지불:석식2회,단체비자대.기사가이드경비,유류할증료,PCR검사비 출발일:8월부터 매주 화,목,금,일
대구출발 몽골 울란바토르·테를지 5/6일 1,390,000원 부터
※별도지불:기사가이드경비,PCR검사비용,개인경비 / 선착순10명 할인 출발일:7/28~8/15 매주 목,일
대구출발 베트남 다낭·호이안·후에 5/6일 599,000원 부터
※별도지불:유류할증료,필수선택관광,기사가이드경비,개인경비,신속항원경비 출발일:5/28~ 매주 수,토
대구출발 태국 방콕·파타야 5/6일/6일 699,000원 부터
※별도지불:유류할증료,필수선택관광,기사가이드경비,PCR검사비용,개인경비 출발일:6/23~ 매주 목,일
부산출발 치앙마이·치앙라이 5/6일 879,000원 부터
※별도지불:기사가이드경비,선택관광,PCR검사비용,개인경비 출발일:7/21부터 매주 목,일

골프특선

대구출발 태국 무제한 골프 5/6일 699,000원 부터
※별도지불:유류할증료,신속항원,개인경비,매너팁 출발일:6/23부터 매주 목,일
대구출발 베트남 다낭 골프 5/6일 1,249,000원 부터
※별도지불:유류할증료,개인경비,매너팁,신속항원 출발일:5/28부터 매주 수,토
부산출발 태국 치앙마이 골프 5/6일 1,099,000원 부터
※별도지불:미팅/샌딩,중식,캐디팁,카트비,개인경비 출발일:7/21부터 매주 목,일
대구출발 제주골프 2일/3일 699,000원 부터
※별도지불:카트비,캐디팁,중석식,개인경비 출발일:매일출발

청정 섬여행특선

울릉크루즈 2박3일 289,000원 부터
※별도지불:유류할증료,선택관광,석식,개인경비 출발일:매일출발
울릉크루즈 3박4일 339,000원 부터
※별도지불:유류할증료,선택관광,석식,개인경비 출발일:매일출발
홍도·흑산도 2일 309,000원 부터
※별도지불:중식1회,선택관광,개인경비 출발일:매일출발

66 SINCE 1956.07.02



2022 경영목표
환자중심! 모두가 행복한 파티마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병원



1956. 07. 02. 파티마의원

66년 전 작은 의원으로 처음 문을 연 대구파티마병원!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온
지난 66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역 중심 병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중심! 진료중심! 이념중심! 병원으로
100년! 200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DAEGU FATIMA HOSPITAL 대표 1688-7770 예약 1688-7090



1984. 02. 09. 파티마병원